"정우성 덕분에 대박 자신"

metro
메트로 2013년 7월 8일 월요일

추신수 올스타 탈락 한풀이

아시아나항공 '7월 악몽'

美공항 착륙중 충돌·화재… 중국인 소녀 2명 사망·한국인 44명 중경상

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착륙 도중 충돌사고로 불에 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동체 /AP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 B777-200ER 여객기가 7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도중 충돌사고가 발생,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련기사 3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아시아나OZ 214편에 승객 291명과 기장을 비롯한 승무원 16명 등 모두 307명의 탑승자 가운데 중국인 여성 2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 생존자 중 49명은 중상, 132명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중 44명이 한국인 승객인 것으로 파악했다.

탑승객은 국적별로 중국 141명, 한국 77명, 미국 61명, 인도 3명, 베트남 1명, 기타 7명 순이다.

공항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기는 제2활주로에 착륙하던 중 비행기 앞쪽이 들리며 꼬리 부분이 활주로에 닿으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비행기 뒷부분이 떨어져나갔다.

항공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으로 착륙 시 꼬리 날개 혹은 랜딩 기어 제어 불능 등 기체 결함, 샌프란시스코 만 방파제 충돌로 인한 꼬리 날개 파손, 비행기 조종 미숙 등을 제기했다.

다만 "테러 공격과 연관성은 없다"고 FBI 관계자가 말했다.

CNN 등에 따르면 사고기 기장은 착륙 직전 관제탑에 "응급차가 필요하다"는 교신을 보냈다고 보도, 비행기 착륙 전 항공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사고대책반을 구성, 이날 오후 1시30분 특별기편으로 샌프란시스코 사고 현장에 급파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1993년과 2011년 7월에도 각각 여객기와 화물기가 추락하는 등 인명 사고를 대 누리꾼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김종의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못다는 여풍당당

한국 여성임원 비율 '45개국 중 44위'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을 배출하며 '여풍당당' 시대에 진입한 대한민국. 하지만 대다수 한국 기업에서 여성에게 '유리 천장'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여성들이 '승진 사다리'를 타고 '기업의 별'로 불리는 임원 자리에 오르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다.

7일 미국의 기업지배구조 분석기관 GMI레이팅스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한국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1.9%로 조사 대상 45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다.

한국에서 여성 임원이 배출되기 가장 어려운 이유로는 출산과 육아 문제로 인한 경력 단절이 꼽힌다. 여성 임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유럽 국가들은 여성들이 결혼한 뒤 50~60대까지 지속적으로 경력을 이어간다. 회사의 탁아시설과 복지 정책, 정부 차원의 지원책 덕분이다.

지난 3일 삼성전자의 201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의 전체 임원 1329명 중 여성의 비율은 2.4%다. 또 전체 임직원(23만5868명) 가운데 여성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39%지만 여성이 임원이 될 확률은 0.01%에 불과하다. 여성 1만 명에 1명꼴로 임원이 되는 것이다.

반면 남성의 경우 지난해 기준 약 16만 명 가운데 1297명이 임원으로 선출됐다.

/조선미기자 seoomi@

뉴스 & 뉴스

의·치대 정원 2015학년도 부터 1195명 증원

● 현재 고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5학년도부터 의·치대 학부 신입생 정원이 1000명 넘게 늘어 대입 지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5학년도부터 의·치대 학부 정원은 2965명으로 전년도(1770명)보다 67.5%(1195명)나 늘어난다. 이는 2017학년도부터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을 의·치과 대학으로 학제를 변경하는 대학이 2015학년도부터 학부 과정에서 신입생을 선발하기 때문이다. /한용수기자

고교 한국사 내년부터 두 학기에 걸쳐 수업

'머드 미녀' 보령머드축제 홍보행사가 7일 서울광화문광장에서 열려 시민들이 머드팩 체험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내년부터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한국사를 두 학기에 걸쳐 배우게 된다. 한국사를 한 학기에 몰아서 배우는 것은 금지돼 한국사는 집중이수제에서 사실상 제외된다.

교육부는 우리 학생들의 역사 인식 부족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 같은 한국사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한용수기자

한국인 스마트폰 데이터 사용1위 웹서핑

●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웹서핑으로 가장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동영상 이용 데이터가 가장 많을 전망이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는 지난해 한국의 연간 스마트폰 데이터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 이용량이 90 PB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 /기국릉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820> 그림 박상률

윔블던 테니스 대회 개막
1877년 7월 8일 세계 4대 메이저 테니스 대회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대회이자 유일하게 잔디 코트에서 펼쳐지는 윔블던 테니스 대회가 영국 런던 외곽 윔블던에서 처음 열렸다. 윔블던 대회는 유니폼과 운동화 색깔을 흰색으로 제한하는 등 독특한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최다 우승자는 '철녀' 나브라틸로바로 무려 9차례나 우승 트로피를 만졌다. 개최국 영국의 우승자는 1977년을 마지막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때문에 자국 대회에서 자국 선수가 우승하지 못하는 현상을 빗대 '윔블던 효과'라는 경제 용어까지 생겨났다.

활짝 웃는 개성공단 남북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합의한 7일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 업체 대표(오른쪽)가 서울 여의도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비대위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시간 만에 이은 95일

밤샘협상 끝 개성공단 재가동 원칙적 합의… 10일 방북해 설비 점검

남북한은 7일 개성공단 잠정 폐쇄와 관련, 기업들을 재가동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하는 등 4개 항에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오전 4시5분께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당국 간 실무회담의 종료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 이 같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3일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발생한 지 95일 만에 정상화 수순으로 가는 반전 기회가 열릴지 주목된다.

남북은 이와 함께 장마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 등이 10일부터 공단을 방문해 설비 점검과 정비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남측 기업이 완제품·원부자재를 반출하는 데도 협의했다. 북측은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남측 인원들의 안전한 복귀 및 신변 안전과 차량의 통행, 통신을 보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 재발 방지 및 공단 정상화를 위한 후속 회담을 개성공단에서 10일 열기로 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회담 종료 후 브리핑에서 "남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성공단을 발전적으로 정상화해 나간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이렇게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6일 오전 통신선 문제로 실무회담이 지연 시작됐다. 이날 협상을 타결하기까지 양측은 16시간 밤샘 협상 동안 2차례 전체회의를 비롯한 12차례 접촉을 통해 이 같은 안을 이끌어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자들은 이날 남북의 회담 결과에 환영했으나 가동 중단이 장기화된 공백을 극복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김용국기자 gusel19@metroseoul.co.kr

음주단속 알고도 걸린 1000명

지난 금요일 밤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예고했는데도 단 3시간 만에 1000명이 적발되는 등 '간 큰' 운전자들이 여전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5일 밤 10시부터 6일 새벽 1시까지 시차제 전국 일제 음주운전 특별단속 결과 1086명이 적발됐다. 올해 하루 평균 단속 인원 707명보다 379명(53.6%) 많은 숫자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 혈중 알코올 농도 0.05~0.09%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482명, 0.1%를 넘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586명이었다. 18명은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휴가철인 7~8월 두 달간 매주 금·토요일 전국에서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는 한편 휴양지·유흥가 등 음주운전 취약지에서 주·야간 관계없이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잠깐만! 메트로 포토 캠페인

"접어야 더 예쁜 다리" 길고 늘씬하게 뻗은 다리가 모든 자리에서 환상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지하철 안에서 복로를 향해 길게 뻗은 다리는 결코 예쁘지 않다.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공간 지하철. 복도 쪽으로 길게 뻗은 다리는 다른 승객이 서 있기에도, 지나가기에도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자리에 앉으면 다리를 접어주는 것은 지하철에 탄 상대에 대한 배려다. /서울메트로 제공

평소 이용않던 28L 활주로 착륙 왜?

아시아나기 사고 이모저모

아시아나기는 평소 여객기가 이용하지 않는 활주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사고기는 샌프란시스코 공항 활주로 28L에 비상착륙했으며, 통상 여객기가 착륙하는 28R 활주로를 이용하지 않았다. 28L 활주로는 평소 교신 시스템 문제 때문에 야간 화물기만 이착륙하며, 다음달까지 여객기 이착륙가 금지된 상황이다. 또 수신호(手信號)로만 이착륙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숫자 7관련 '777 괴담' 확산

아시아나 항공기착륙 사고와 관련해 온라인에 숫자 7과 관련된 괴담이 퍼지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lh99***'는 "7월 7일 보잉 777항공기에 타고 있던 한국인 77명, 중국인은 국적 142명(1+4+2=7), 미국 국적 61명(6+1=7), 승무원 16명(1+6=7)"이라는 글을 남겼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 'csi***'는 "보잉 777, 7월 7일, 한국인 77명, 7이 7개 모였다"고 썼다.

사고가 난 비행기의 편명 OZ 214에 나오는 각 숫자를 더하면 역시 7이 나온다는 점, 사고 여객기가 2006년 3월 당시 국토해양부에 등록돼 올해로 운항 7년째라는 점 역시 소문의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

◆사고 현장서 빛난 SNS 생중계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 현장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위력이 또다시 확인됐다.

사고기에 타고 있던 데이비드 은 삼성전자 부사장은 사고 발생 1시간 후에 트위터에 "방금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불시착했다"며 "비행기 꼬리 부분이 뜯겨 나갔다"고 전했다. 그는 "사방에서 소방관과 구조대원들이 부상자들을 대피시키고 있다. 9·11 이후 이런 느낌은 처음"이라며 사고 경험에 대해 '초현실적'이라고 묘사했다.

공항 대합실에서 탑승 대기자가 찍은 것으로 보이는 영상에는 유리창 너머로 검은 연기를 내뿜는 여객기의 모습이 담겼다. 줌을 앞뒤로 당겨가며 영상을 찍은 촬영자는 중간에 "오 마이 갓"이라고 탄식을 내뱉었다.

◆보험가입액 2조7000억원

아시아나기는 모두 2조7000억원 상당의 항공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항공기의 기체 보상 한도액은 엔진 포함 1억3000만 달러(약 1480억원). 시설물과 대인보상 등 배상 책임 한도는 22억5000만 달러(약 2조5695억원)다. 이번 사고로 기체와 엔진까지 전체 손실 처리될 것으로 예상돼 1485억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승무원 상해보험 책임한도는 1인당 10만 달러(약 1억1000만원)로, 총 보상한도액은 300만 달러(약 34억3000만원)다.

/김플라우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고개숙인 아시아나 윤영두(왼쪽) 아시아나항공 사장이 7일 서울 강서구 오쇠동 본사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착륙 중 충돌사고를 일으킨 OZ 214편 여객기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월급쟁이 가구 3.6% 부도위험

자영업자 가구보다 높아

월급쟁이 가구가 자영업자보다 부실 위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영업자는 그동안 가계부채 문제의 취약계층으로 지목돼왔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5일 '가계부채 부실 위험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논문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가구주가 임금 근로자인 부실 위험 부채 가구 비율은 자산회수율(80~100%)에 따라 2.87~3.56%의 비율을 보였다. 1만 명 가운데 287~356명꼴로 빚 때문에 재무 불이행자가 될 확률이 있다는 의미다.

이에 비해 가구주가 자영업자인 부실 위험 부채 가구 비율은 1.84~2.2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구주가 실업자 등 기타에 속한 가구는 4.31~6.11%였다. 임금 근로자에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저소득 비정규직도 포함됐다고 김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세종=박지원 min@

화요일밤마다 야외극장 '활짝'

영화의전당 상영회…'말할 수 없는 비밀' 등 명작 줄줄이

부산 영화의전당 '한여름 밤의 야외상영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원한 여름밤을 선사한다.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영화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한여름 밤의 야외상영회'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2만여 명의 관객이 찾아 부산의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한여름 밤의 야외상영회는 올해도 7월부터 9월 둘째 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개최된다.

4000석 규모의 야외극장 관람석은 영화의전당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거대한 지붕 아래 설치돼 있다. 대형 스크린(가로 24m, 세로 13m)으로 날씨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주변의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 영화의 재미와 감동을 즐길 수 있다.

7월 상영작을 살펴보면 홍콩 액션의 대가 두기봉 감독의 '대사건'(9일)을 비롯, 영화 속 식탁에 가득 채워진 요리가 몸과 마음을 풍족하게 만드는 '바베트의 만찬'(16일), 한국애니메이션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 '마당을 나온 암탉'(23일), 우디 앨런이 예술가들에게 보내는 유쾌한 메시지 '브로드웨이를 쏴라'(30일)까지 총 4편의 영화가 관객 맞을 채비를 하고 있다.

특히 명필름 문화재단의 후원으로 23일 상영되는 '마당을 나온 암탉'은 어린이와 함께 온 가족 관람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할 것으로 기대된다.

8~9월에도 '말할 수 없는 비밀', '베종 드 히미코' 등 명작들이 줄줄이 준비돼 있다.

2013 한여름 밤의 야외상영회의 자세한 일정은 영화의전당 홈페이지(www.dureraum.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51)780-6000

/허용무기자 cyclone@metroseoul.co.kr

에어부산 차 경품 당첨자 발표

에어부산이 지난 4월 23일 탑승객 1000만 명 돌파를 기념해 진행한 SM5 자동차 경품 퀴즈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했다.

지난 5일 열린 전달식에서 최만호 에어부산 상무, 김종형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김인혁 르노삼성자동차 이사가 참석해 당첨자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제조업 업황 전망 올들어 최고수준

지역경제 회복세 '완연'

부산 경제가 완연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경기, 소비자 심리, 수출 전망 등 대부분의 지표가 개선되면서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경기 회복 기대감을 높였다.

7일 한국은행 부산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지역 제조업 업황 기업실사지수(BSI)는 84로 전달의 81보다 3포인트 상승하면서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업황 BSI는 100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 업황이 나아졌다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이하면 그 반대를 나타낸다.

부문별로는 매출 BSI(81→85)와 수출 BSI(85→89), 내수판매 BSI(81→85)가 모두 상승했다.

7월중 제조업 업황 전망 BSI도 81을 기록해 전달의 전망치 79보다 2포인트 올랐다.

부산지역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견해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 CSI도 106을 기록해 전달보다 2포인트 상승하면서 역시 올 들어 가장 높았다.

현재 생활형편 CSI가 전달에 비해 6포인트 상승하면서 94를 기록했고 6개월 뒤의 생활형편 전망 CSI도 1포인트 상승하면서 기준치 100에 근접한 99를 기록했다. 소비지출 전망 CSI는 10?로 기준치 100을 넘겨 침체된 소비가 되살아날 것으로 예상됐다.

/연합뉴스

국내 첫 해상다이빙대 복원 1927년 국내 첫 해상 다이빙대로 화제를 모았던 부산 송도해수욕장의 명물 해상 다이빙대가 해수욕장 개장 100주년을 맞아 26년 만에 복원됐다. 7일 오전 송도해수욕장 해상 다이빙대 준공식에 참가한 수영선수들이 다이빙 시범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관수영대회기가 올리고 있다.

/뉴시스

그때 그시절 영화로 추억여행

부산시민회관이 개관 40주년을 맞아 '그때 그 시절 영화'로 추억여행을 떠난다.

부산시민회관은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추억의 만화영화 2편과 아소를 대표 영화 5편을 무료 상영하는 '그때 그 시절 영화전'을 연다.

어린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추억의 만화영화 2편은 김청기 감독의 '로보트태권브이'(1976년 7월 개봉) 디지털 복원판과 '미루치 아라치'.

전세계 흥행 열풍을 몰고 왔던 이소룡 명작 시리즈 5편은 '당산대형', '정무문', '맹룡과강', '용쟁호투', '사망유희' 등이다.

홍경호 시민회관 공연 담당은 "이번 영화상영은 추억의 장소였던 시민회관의 옛 기억을 되살리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사태 경부고속도로 영천구간 통행 재개

산사태로 막혔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영천 구간의 통행이 재개됐다.

7일 한국도로공사 경북본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부터 전날 부분 개통했던 1~2차선에 더해 나머지 3차로의 통행을 재개했다.

이로써 해당 구간의 차량 통행이 정상화됐다. 지난 5일 사고가 난 뒤 38시간 만이다.

다만 산사태가 난 경사면 복구 및 H빔과 그물망 설치 등 안전조치를 위해 갓길은 계속 작업 중이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2시50분께 경북 영천시 금호읍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99㎞ 지점에서 산사태가 발생, 토사와 암반 약7000t이 쏟아져 상행선 3개 차로가 모두 막혔다.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발생 이후 이날까지 굴삭기 등 장비 80여 대와 인력 150여 명 등을 동원해 밤샘 복구 작업을 벌여왔다.

/뉴시스

시외버스 빗길사고…12명 사상 7일 오전 경남 진주시 명석면 국도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옆으로 넘어진 시외버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유아·건강체육지도사 자격연수 20일 개강

(사)한국유아체육교육협회와 (사)세계웃음건강박수협회는 오는 20일부터 제64기 유아체육지도사 및 제1기 건강체육지도사 자격 연수를 개강한다고 5일 밝혔다.

연수 기간은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총 4일(7월 20·21·27·28일)간에 걸쳐 진행되며 체육학과 졸업생 및 유아교육 관련 학과나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유아·건강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스포츠센터 각종 유아교육원 등에서 체육지도자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며 "유아 및 국민의 건강 증진과 자신의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51)441-5511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층
TEL 02)721-9800, FAX 02)739-1561
총괄단체장 남궁표
사장 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진호
부산지사장 직대 김종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31~3
부산광고문의 051)459-2100
독자센터 02)721-9901
2003년 5월 28일 등록 번호 서울특별시 가00000

따오기 쉼터 만들어요 5일 경남 창녕군 유어면 세진리 우포늪 인근 논 습지에서 지역 주민들이 비술 맞으며 손모내기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날 심사는 논 습지 인근인 우포 따오기 복원센터에서 자라고 있는 따오기들을 위한 쉼터 마련을 위해 열렸다. /연합뉴스

재활용품 다오 시장쿠폰 줄게

연제구 재사용+가치 창출 '업사이클링' 주목

자원 재활용을 유도하고, 평소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을 전통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부산 연제구의 '업사이클링'이 주목을 받고 있다.

부산 연제구는 지난 5월부터 도입한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위한 업사이클링(Upcycling)'이 전통시장 상인은 물론 주민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업사이클링이란 재사용을 의미하는 리사이클링의 상위 개념으로, 재사용+가치 창출을 의미한다.

연제구의 업사이클링은 오는 10월까지 매월 1회(둘째 주 일요일) 부산 연제구의 전통시장인 연일시장 등지에서 진행된다.

연제구는 주민이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그 무게에 따라 전통시장에서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사이클링을 운영하고 있다.

쿠폰 지급 대상 재활용품은 건전지, 고철, 옷, 빈 요구르트병, 종이팩, 캔, 페트 등 7가지이며 파지는 대상이 아니다.

연제구는 현재까지 업사이클링을 통해 923kg의 각종 재활용품을 수거했다.

김영기 연제구 부구청장은 "주민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자원 재활용 시책에 적극 참여한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전통시장 상인은 전통시장 방문객 증가에 따른 이득을 보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양산부산대병원 폐 이식 성공

양산부산대병원이 폐 이식에 성공했다. 양산부산대병원 호흡기클리닉 폐 이식팀은 체외막 산소공급기(ECMO)를 물을 받기 폐섬유화증을 앓는 50대 남자 환자의 폐를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의료기관 가운데 폐 이식 성공은 처음이라고 병원 측은 소개했다. 폐 이식을 받은 이 환자는 재활 치료 후 한 달 만에 퇴원했다고 덧붙였다.

체외막 산소공급기는 혈액을 밖으로 빼내 산소를 공급한 후 다시 혈액 안으로 넣어주는 장치다.

폐섬유화증은 폐 세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굳어지는 병이다.

어르신용 육아 매뉴얼 나온다

시 "아이 낳기 좋은 부산 만들기 최선"

맞벌이를 하는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손자·손녀의 양육을 떠맡았지만 옛날과 달라진 아이 양육법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해 부산시가 나섰다.

부산시는 10일 오후 4시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어르신용 육아 건강관리 매뉴얼' 제작 완료 보고회를 연다.

이번 보고회는 부산시가 '아이 낳기 좋은 부산 만들기'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육아 건강관리 매뉴얼을 제작·홍보함으로써 손자·손녀를 키우는 조부모 등 육아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육아법을 적극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보고회 참석자에게 육아 건강관리 매뉴얼을 무료로 배부할 예정이다.

육아 건강관리 매뉴얼은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위기 시 대처 요령은 물론 놓치기 쉬운 예방접종 시기 등 아동기에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과 대응 요령을 담고 있다.

이 책자는 조부모의 손자·손녀 양육 지침서로 개발됐지만 어린이집의 보육 교사와 아이를 돌보는 부모 모두에게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과거와 다른 양육 방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부모에게 이번 건강관리 매뉴얼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으로 '아이 낳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렬 치과원장 대한구순구개열학회장 당선

대한구순구개열학회는 지난 6월 30일 열린 제17회 대한구순구개열학회 학술대회 겸 정기총회에서 부산 온 종합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김종렬(앞줄 오른쪽 셋째) 치과원장이 제8대 학회장으로 당선됐다고 5일 밝혔다.

차기 회장으로 당선된 김종렬 원장은 그동안 대한구순구개열학회 국제이사를 맡아 국내외 의료봉사 활동, 다문화가정 구순구개열 수술 지원 등을 주도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구순구개열 환자들을 돕는 데 적극 나서는 한편 부회장 재임 기간 동안에는 학회의 위상 정립과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회장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 박사,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교수를 거쳐 현재 부산 온 종합병원 치과원장 겸 턱얼굴수술센터장을 맡고 있다.

그는 대한구순구개열학회뿐만 아니라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명예회장과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총무이사를 역임하는 등 대한민국 구강악안면외과 분야의 최고 권위자다.

흔히 언청이라고 알려진 구순구개열은 얼굴에서 가장 흔한 선천성 기형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약 650~1000명당 한 명꼴로 발생한다.

김 회장은 "구순구개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인식 제고는 물론 다문화가정 지원, 국내외 의료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불 위 여인들 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전통 축제에 참가한 여성들이 모닥불을 뛰어 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볼리비아도 "스노든 오라" 남미3개국 망명 허용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30)이 망명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볼리비아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에 이어 남미 국가로는 4번째로 스노든의 망명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이 "전혀 두렵지 않다"면서 스노든이 망명을 신청한다면 기꺼이 망명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의 환승 구역에 보름 가까이 머물러 있는 스노든이 다른 나라로 입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남미 3개국이 망명 허용 의사를 밝힘에 따라 어떻게 해서든 러시아를 떠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노든은 지난주 그가 망명을 신청한 21개 나라로부터 거부를 당한 상태다. 대다수 국가들이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그의 망명을 꺼리고 있다. 한편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는 나라 이름을 거명하지 않은 채 "스노든을 위해 다른 6개 국가에 추가로 망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선미기자

41년만의 쌍둥이 재회

metro China

꼭 닮은 모습 착각한 형 친구 주선으로 기적의 만남

중국에서 41년간 모르고 지냈던 쌍둥이가 친구의 착오로 기적같이 다시 만났다.

화제의 주인공은 쌍둥이 형제 청융과 류융. 41년 전 헤어진 뒤 형 청융은 쓰촨성 청두에서, 동생 류융은 쓰촨성의 네이장에서 자랐다.

지난달 23일 청융은 네이장시에서 친구 '청융'을 발견하고 그가 청두시에 있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기며 그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그는 청융을 알아보지 못했다.

결국 청융이 아닌 것을 확인했지만 청융은 친구와 닮아도 너무 닮은 모습에 그 남성의 생년월일을 물었다.

자신의 친구를 닮았다는 청융의 말에 류융은 어린시절 자신에게 쌍둥이 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을 불현듯 떠올렸다. 자신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단 사실을 전해 들었던 청융은 처음에는 친구의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동생 류융(왼쪽)과 형 청융 /조선미

결국 사진을 전송해 본 두 사람은 스스로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닮은 얼굴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전화로 살아온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후 청융 가족은 네이장에 류융을 만나러 갔다. 청융의 아들이 먼저 류융을 알아보고 "아버지, 아버지랑 똑같으신 분이 저기 계세요!"라고 소리쳤다. 청융은 "친자확인을 할 필요도 없었다. 보자마자 우리가 쌍둥이 형제란 걸 알았다"고 말했다.

형제는 어렴풋한 기억을 더듬어 떠난 지 41년 된 고향을 찾았다. 수소문 끝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어머니와는 감격의 재회를 나눴다. 어머니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형제를 다른 집에 맡겼다며 눈물을 흘렸다.

현재 형은 여관 사장, 동생은 네이장시 시내버스회사의 책임자가 돼 각각 아들 하나씩을 두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다.

네티즌들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다" "정말 감동적이다"며 이들 형제의 재회를 축복하고 있다. /정하나·조선미기자

발바닥, 발가락 통증? 더 이상 참지마세요!

발바닥에 껌이 붙은 것처럼 먹먹하거나, 발을 잘못 딛는 경우 발가락에 찌릿하게 전기통하는 느낌이 든다면 지간신경종(몰톤씨신경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아무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발바닥이 아프기 시작하는 지간신경종은 처음에는 발가락이 갈라지는 부분인 발바닥의 앞쪽에 무언가 이물질을 한 겹 붙여놓은 것처럼 느낌이 둔감하거나 마치 모래를 밟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감각이 이상하기도 한다. 가만히 있을 때에도 발바닥 한쪽이 화끈거리고 심하면 통증마저 느껴진다고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다.

병원에서 엑스선을 찍어보고, 허리가 원인인가 싶어 허리 MRI도 촬영하고, 혈관문제인가 싶어 혈관조영술을 해봐도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보니 증상은 점점 심해지고,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은 물론 걷는 것마저 힘들어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게 된다.

현대인의 발은 끊임없이 혹사당하고 있다

발은 신체의 모든 뼈 중 5분의 1이 몰려 있고 평생토록 지구의 4바퀴 반에 해당하는 거리를 움직인다. 최근 발바닥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라는데, 통증은 곧 질병의 신호. 병의 작은 통증이나마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의 고통을 주기도 한다.

'예쁜 발=작은발' 이라는 통념이 아직도 남아있다. 특히 여성들은 발이 크면 미련해 보일까봐 발이 작고 날렵해 보이는 신발을 선호하는데, 이런 신발을 애용하는 여성들은 발의 앞부분인 중족골과 발가락 신경에 생기는 지간신경종을 주의해야 한다.

지간신경종은 발가락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과도한 압박을 받거나 발가락 사이에서 눌려 붓는 질환을 말한다. 굽이 높은 구두를 신는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굽이 높은 구두를 신으면 발가락 신경과 주변 조직에 과도한 자극이 가해져서 몸무게 전체의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발바닥의 앞쪽 부위가 저리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는 증상으로 중년 이후 분들에게 흔히 발견된다. 가끔 발바닥 통증을 허리쪽의 이상 때문인 것으로 오인해 병원으로 오는 환자도 제법 있다.

이제 멀리 가지 않더라도 부산에서도 무지외반증과 지간신경종 등의 발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부산에서도 지간신경종, 무지외반증 치료해

부산에서 지간신경종, 무지외반증 등 족부관련질환을 전담하여 케어하는 족부클리닉을 운영중인 대한민국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 "몸을 지탱하는 받침대인 발은 26개의 뼈와 33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오묘하게 움직이지만 어느 한 곳만 이상이 생겨도 보행에 필요한 균형을 잃고 연쇄적인 통증을 일으키게 된다"며 "발가락은 한 번 변형되면 다른 발가락을 변형시키고 무릎, 허리 관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변형과 통증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손과 발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손가락의 움직임이 중요한 손과 달리 발은 체중을 부착하여 걷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행을 편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어 치료해야 하며, 발이 불편하면 보행이 틀어지므로 무릎, 엉치, 척추에도 무리가 갈 수 있다.

디스크, 하지정맥류, 혈관장애 등으로 오인, 오랜기간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

지간신경종은 매우 다양한 감각 이상을 호소한다.

보통 가만히 있을 때는 거의 증상이 없다가 걷거나 딱딱한 바닥에 닿으면 발바닥 앞쪽이 화끈거린다. 특히 발가락과 발가락으로 연결되는 뼈 사이의 신경 부위에서 가장 많이 느낄 수가 있다. 이 부위는 발바닥중에서 체중의 압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이다.

마치 껌이 붙은 것처럼 먹먹한 것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발을 잘못 딛는 경우 발가락에 찌릿한 느낌이 뻗치고 따끔 발이 시리거나 뜨겁다고 호소한다. 특히 상당수가 막연히 발이 저리다고 하는데, 디스크나 하지정맥류, 혈관 장애 등으로 오인받아 MRI나 혈관검사 등을 찍어보지만 오랜 기간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신경을 잘라내지않고, 절골술을 시행, 지간신경종의 원인을 제거한다

대한민국정형외과 이준호원장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후된 지간신경종 자체를 절제하지 않고, 중족골 사이에 끼어서 붓게 된 지간신경의 압박을 감소시켜주는 절골술을 시행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간혹 시술 후 부종이나 통증, 부정유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대한민국정형외과의원의 이준호 원장은 지간신경종의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수술법을 시행하여 수술 부작용을 더 줄이고, 재발을 걱정도 덜어준다. 그러면서 수술은 부위마취로 이루어지며 의료보험이 적용되므로 환자부담도 덜었다.

대한민국 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 오랜 경험과 수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손질환과 발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효과적인 치료와 빠른 회복을 위해 수부클리닉과 족부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 고운손과 편안한발을 위한 치료노력에 매진하고 있다.

market index <5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1833.31 (−5.93)	524.40 (+0.18)	2.95 (+0.02)	1142.00 (+2.30)

뉴스&뉴스

8분기 연속 0%대 저성장

●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7일 자체에 따르면 2010년 1분기부터 13개 분기 동안 1%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2010년 1분기(2.2%), 2010년 2분기(1.4%), 2011년 1분기(1.3%) 단 세 차례에 불과했을 정도다. 특히 우리 경제는 현재 8분기 연속 0%대 성장을 기록 중이다. (한국은행 자료)

주가 급락에 보고서 53% ↓

●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전략 선언과 삼성전자 쇼크 등으로 코스피가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종목 보고서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국내 증권사들이 내놓은 종목 보고서는 총 837건으로 5월(1777건)보다 52.9%나 감소했다.

온라인쇼핑족 고운맘카드 딱!

김민지 기자의 짠순이 주부 경제학

■고운맘카드 VS 아이사랑카드

기자이가 전에 연년생 남매를 둔 주부입니다. 결혼 전 재테크에 문외한이었던 제가 두 아이의 엄마가 되면서 절약과 재테크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재테크는 아니지만 생활 속에서 아끼고 절약할 수 있는 틈새 재테크를 독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고운맘카드 '아이사랑카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여성분이라면 이 카드에 대해 잘 알 것이다. 나 역시 첫 아이를 임신했을 당시 '이런 카드도 있구나' 라며 신기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아이가 생기면 고운맘카드,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사랑카드는 필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아이 출산에 쏠쏠한 혜택을 주는 고운맘카드는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가 있다.

혜택을 꼼꼼하게 따져본 뒤 본인에게 맞는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보건복지부는 임신이 확인된 경우 산모에게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초음파 검사 등 진찰과 분만 관련 진료비를 고운맘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나의 경우 두 카드 모두 사용해 봤다. 첫째 아이 때는 국민카드를, 둘째 때는 신한카드를 사용했는데 두 카드 모두 여러 혜택이 지원된다.

신한카드의 고운맘카드는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유용했던 기억이 있다. 신규 가입할 때 옥션 이머니 쿠폰 3000원권이 제공된다.

또 옥션과 G마켓,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5% 할인해준다.

KB국민카드는 30여 개 제휴사들의 다양한 할인 혜택이 돋보인다. 산후조리원 예약금 할인부터 제대혈, 산후 마사지, 스튜디오, 이유식 업체 등 알뜰한 산후 관리와 육아 비용 절약에 도움을 준다.

더불어 아이사랑카드는 만 0~5세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어린이집 이용 시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카드다.

보육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영유아의 부모는 우리카드, KB국민카드, 하나SK카드 중 선호하는 카드사를 선택해 이 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된다.

육아에 지친 여성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은 뭐니 뭐니 해도 패밀리 레스토랑과 커피전문점이 아닐까. 우리카드의 우리아이사랑카드는 아웃백을 비롯해 빕스, 베니건스, 마르쉐, 스타벅스 등을 20%나 싸게 해주는 서비스가 있다.

비싼 놀이공원 입장료가 부담스럽다면 이 카드를 추천한다.

하나SK 아이사랑카드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뽀로로파크 입장료를 20%나 할인해주는 혜택이 있다. 또 어린이집 결제 금액 중 본인 부담금을 월 1만 원씩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할인해준다고 하니, 이 부분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mine@metroseoul.co.kr

그랜저 100만원↓…이참에 살까

현대차, 수입차 가격할인에 '맞불'…4개 차종 판매가 내려

수입차 업체들이 갓 출시된 차를 할인하거나 동결하는 가격 정책을 이어가면서 토종 브랜드 맏형 현대차도 차값을 낮췄다.

모델에 따라 최대 100만원으로 통상액이 크지 않지만 새 차를 낼 때마다 가격을 올렸던 관성을 서서히 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대차는 8일부터 그랜저 140, 140 삼륜, 벨로스터 등 4개 차종의 가격을 최대 100만원 인하해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 차종과 할인폭은 그랜저 3.3 셀러브리티는 100만원(4093만→3993만원), 140 D-스펙(3030만→3000만원)과 140 삼륜 D 스펙(2950만→2920만원), 벨로스터 D-스펙(2160만→2130만원)은 30만원씩이다.

각 차종의 최장위 등급(트림) 모델들에 한해 30만~100만원씩 인하한 것이다.

현대차는 인기 옵션인 파노라마 선루프의 가격도 10만원 인하했다.

대상 차종은 쏘나타, 쏘나타 하이브리드, 140, 140 삼륜, 그랜저, 싼타페, 맥스크루즈 등 중대형차 7종이다.

현대차는 올 1월에도 쏘나타, 제네시스, 제네시스 쿠페, 싼타페, 맥스크루즈 등 5개 차종의 고급 트림 10개 모델에 대해 가격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당시 인하폭은 22만~100만원이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쏘나타 더 브릴리언트를 선보이며 기본형 모델 가격을 종전 그대로 동결했고, 지난해 12월엔 2013 그랜저를 출시하며 전 모델의 가격을 동결 또는 인하했다.

/박상호기자 sanh@metroseoul.co.kr

스마트폰에 꽂아 쓰는 USB 7일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별도의 프로그램 등의 없이 PC와 스마트폰에 직접 연결해 저장한 동영상과 사진, 음악 등을 이용할 수 있는 OTG USB(32G)를 선보이고 있다. 가격은 3만9000원. /연합뉴스

암 진단비 최대 5번까지 준다

LIG 손보 '메디케어 건강보험' 내놔…비갱신형 가입도 가능

LIG손해보험(www.LIG.co.kr)이 암 종류에 따라 암진단비를 최대 5번까지 받을 수 있는 암 집중 보장 신상품 '무배당 LIG110메디케어건강보험'을 판매한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재 설계를 통해 최대 4번까지, 최고 1억2300만원의 암진단비를 지급한다는 점이다.

암 유형별 치료 비용과 치료 기간 등에 맞춰 고액 치료비 암의 경우 최대 4000만원, 일반 암 4000만원, 특정 소액 암 2000만원, 유사 암 300만원의 진단비를 지급한다.

또한 재발한 두 번째 암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원의 암진단비를 지급해 총 5번의 위험에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110세까지 비갱신형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가입자의 자금 여력에 따라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선택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가입 간편한 고령자용 암보험

라이나생명 '실버암 보험' 출시…질병 무심사에 100세 보장

라이나생명보험이 국내 최초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고령자들의 가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고령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질병에 대한 무심사를 적용해 고령자들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 상품으로 고안됐다.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은 61세에서 75세까지의 고령자들이 가입 가능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10년 만기 암보험 상품으로,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대장암·간암 등 일반 암(유방암·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암치료보험금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400만원을 보장받는다.

이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라이나생명 홈페이지(www.lina.co.kr) 또는 고객서비스센터(080-951-858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희원기자

포스코 1조2000억원 배상금 물어줄수도

포스코가 일본 신일철주금에 약 1조2000억원가량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포스코가 신일철주금과의 기술 유출 소송에서 신일철 측의 기밀자료 일부를 입수했음을 인정하는 서면을 도쿄지방재판소(지법)에 제출했다고 7일 보도했다.

신일철주금은 지난해 4월 포스코가 1987년 변압기 등에 사용하는 신일철의 영업 기밀,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 기술을 당시 신일철 퇴직 사원을 통해 빼돌렸다면서 986억엔(약 1조2000억원)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정민기자

'주니어보드 21'참여할 대학생 모여라

TBWA코리아 모집중

독립광고회사 1위 업체인 TBWA코리아에서 대학생 대상 사회공헌 교육 프로그램인 주니어보드 21기를 모집 중이다.

일반 인턴제와는 달리 큰 2회 이상의 정기 모임(매주 금요일)을 통해 프로젝트별로 과제가 부여되고 제출한 과제물을 평가 및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사 일정에 지장을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다.

이번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회원에게는 인턴사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 등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서류전형, 토론, 면접 등 신입사원 공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선발하는 21기 모집 마감은 15일.

대학생이면 누구나 TBWA코리아 홈사이트(www.tbwakorea.com)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부동산단신

불광역 5분 롯데캐슬 상가

롯데건설이 서울시은평구 불광동 550번지 일대에 위치한 불광 롯데캐슬의 상가를 7월 중순에 입찰 예정이다.

불광 롯데캐슬 상가는 3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인 불광역을 도보로 5분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했다.

인근에 이마트, 아울렛 등의 대형마트는 물론 먹자골목과 재래시장이 있어서 상권 경쟁력이 높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분양 문의: 02)389-7407

부영 '우정학사' 신축 기증

국내외에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온 부영그룹 이중근(사진) 회장의 '나눔 경영'이 이번엔 국내 고등학교로 이어졌다. 이 회장은 4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위치한 부산남고등학교(교장 장성욱)에서 생활관과 다목적 기숙사인 '우정학사'를 신축, 기증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 회장의 아호인 '우정'에서 이름 붙인 우정학사는 연면적 1340㎡(405평)에 지상 4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다양한 학습, 교육 및 편의시설을 갖췄다.

/김민지기자

2013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국실시

전국적인 음식물 쓰레기 대란!!

창업은 타이밍이다!!

1조원의 국가시책사업 천만원으로 성공창업에 도전하세요!

세계유일
無배기호수
無침출수
無악취실현

無점포 無재고 無추가비용

☑ 쓰레기가 없어졌어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손으로 꾹꾹 눌러 담았다고요?
남은 음식물을 불편하게 모아두지 말고 바로 바로 없애버리세요.
음식물의 90% 이상을 완전히 없애주는 미랜 음식물 바이오처리기!
우리나라 음식물에 강한 80여 종의 친환경적 미생물이 비밀입니다

☑ 냄새가 없어졌어요!
온종일 음식물 쓰레기 냄새를 참고 계셨다고요?
99% 완벽하게 냄새를 없애주는 하이브리드 탈취장치로 끝!
21종의 규제 악취와 유해물질까지 깔끔하게 사라집니다.

☑ 세균이 없어졌어요!
부패한 음식물에서는 살모넬라균, 대장균 등이 우글우글~
금속이온 산화촉매방식, 특별한 탈취장치로 해결하세요.
자외선을 통한 산화반응으로 각종 바이러스도 99% 제거완료!

사업비전

미랜바이오 음식물처리기에 없는 4가지?
▶ 악취 NO ▶ 환경오염 NO
▶ 설치 시공 NO ▶ 추가비용 NO

수상경력

1. 캐나다 밴쿠버 세계 학술회 최우수 상품선정
2. 스포츠서울 선정 2011년 기술혁신 브랜드 대상수상
3. 전국 바이마트 입점 상품
4. 설치가 필요없고 사용시 편리하며 24시간 내 분해 소멸됨

국내 최초 성공창업 보장 시스템

▶ 1년 이내 대리점 계약 해지시 창업비용의 최대 50% 반환
▶ 창업 설명회 참석후 계약시 천만원 상당의 제품 지원

남 · 여 사원 모집

문의

1599-3158
010-7258-1313

창업설명회

일시 : 7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
장소 : 서울 금천구 가산동 540-1 대성 디폴리스 지식산업센터 B동 10층
주최 : ㈜미랜바이오

한중관계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정론탁설

유 병 길
<언론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 역사적인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한중 경제협력 증진, 그리고 한중 문화 교류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

"심신지려(心信之旅·마음과 믿음을 찾아가는 여정)"를 중국 방문 슬로건으로 내건 박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이례적으로 환대를 받았다. 리커창 총리는 물론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등 권력 서열 3위에게까지 영접을 받았다. 시 주석은 '라오펑유(老朋友·오랜 친구)'라고 예우하며 정상회담을 시종일관 진지하고 화기애애하게 진행했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지지는 물론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도 공동 노력키로 했다. 또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논의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오는 2015년 두 나라 교역 규모를 3000억 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두 나라 사이에 오는 세대에 걸맞게 문화 교류를 한층 업그레이드하자는 데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은 물론 만찬장과 칭화대(淸華大) 연설 등에서 풍부한 중국의 고전을 인용해 격조 높은 정상외교를 펼쳐 중국 지도부는 물론 13억 중국인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특히 칭화대 강연에서는 시작과 말미를 중국어로 해 더욱 친근감을 주며 기립 박수까지 받았다.

중국 방문이 끝난 다음 네티즌들로부터 한결같은 찬사가 이어졌으며 특히 중국 중앙TV 부이청강 앵커는 박 대통령을 가리켜 '온유사수(溫柔似水) 외모는 물처럼 온유하며) 견정강대(堅定强大) 내면은 결연하고 강대한 인물)'라고 논평하기도 했다. 이번 한중 정상외교는 박근혜·시진핑 시대에 처음 가진 정상회담이지만 한중 관계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는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

그러나 G2 국가로 올라선 중국과의 관계에는 지난날 동북공정을 비롯해 탈북자 문제, 서해 조업 등 다소 껄끄러운 면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우선 이번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성숙시키기 위해 일관성 있고 세련된 외교 역량을 배가해야 한다. 대중 외교 라인을 보다 강화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성을 지닐 수 있는 안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여기에다 정계를 비롯해 경제계, 문화계 등 광범위한 중국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체계가 요구된다. 이제 중국은 우리나라에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나라가 됐다. 어떻게 보면 한중 관계가 한반도의 장래를 결정하는 핵심이 될지도 모른다.

포토프리즘

"죽었나? 살았나?"

5일 서울 잠실한강공원 비치발리볼 경기장에서 열린 '2013 국제배구연맹(FIVB) 세계여자비치발리볼 서울 챌린지'에서 뙤약볕 속 미국팀이 뜨거운 태양 아래 진력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담았다. 미국 선수들이 뒤로 빠지는 공의 진로 방향을 지켜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실소 부른 '삼겹살 파티 경제학'

뉴스룸에서

박 동 호
<경제산업부 차장>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원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읍시다."

이 생뚱맞은 표현은 지난 4일 정부가 내놓은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 방향 및 1단계 대책' 이후 세간에 회자되고 있는 말이다.

기획재정부는 대책을 통해 "바비큐 시설을 갖춘 공원은 부족한 실정이며 공원조성계획에 바비큐 시설을 포함하기면 부담된다"면서 "공원시설에 바비큐 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공원에 바비큐 시설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다수 언론은 '한강공원에서 삼겹살 파티' 제목의 보도를 했고, 국민들은 기대와 동시에 우려를 표했다.

여가 문화와 레저 산업 발전을 위해 찬성한다는 입장과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반대하는 측이 맞섰다.

기재부는 논란이 되자 다음날 부랴부랴 참부 자료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한강 둔치에서의 취사행위는 불가하며 도시공원법상 근린·체육·수변공원에 해당하는 야영장, 야유회장에서는 가능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휴대용 가스버너 사용이나 숯 주기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수질, 환경오염, 교통 체증이 유발되지 않는 장소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달리 적용되는 세제, 금융, 전기료 등을 개선해 서비스산업이 성장·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원론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최근 5년간 20여 차례 나왔던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교육 서비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법인약국, 카지노 등 이해 당사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주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알맹이가 없지 않으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번 대책은 1단계이며 앞으로 관광 분야를 비롯해 후속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비스업은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종사자가 늘면서 지난해 기준 1700만여 명이 일하고 있지만 1인당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에 비해 크게 낮다. 제조업 대비 1인당 노동생산성 비율은 2004년 60%에 불과했고, 2011년에는 그마저도 45%로 더 떨어졌다.

현 정부 관계자의 "괜히 시끄럽게 할 주제는 국회에서 문제만 되고, 통과될 것 같지도 않다"는 발언은 낙후된 서비스업의 현주소를 그대로 반영한 한 단면이 아닐까.

어느 바다의 기억

인문학 산책

김 만 옹
<성공회대 교수>

파도가 잇달아 몰려온다. 그건 마치 하얀 말을 탄 병사들이 서로 앞다퉈 떼를 지어 엄청난 대군을 이루면서 맹렬히 상륙하려는 기세를 닮았다. 멀리서는 그저 바다에 이는 잔잔한 물결이거니 했는데 정면에서 마주하자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일렬횡대로 집결한 이 병력들은 해변에 가까워지는 순간, 갑자기 산맥이 휘어지듯 온몸을 세울더니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힘을 과시한다.

7월의 태양 아래 빛나는 카리브해안의 풍경이다. 나는 그 바다와 대결하는 자세가 된다. 승패가 걸려있다는 생각도 미처 할 겨를 없이 자기도 모르게 자연과 한판 승부를 벌이려는 자가 되고 만 것이다. 그건 믿어낼 수 없는 유혹이다. 강렬한 에너지를 품고 육박해오는 파도에 등을 대고 등을 맡기건, 백색의 물보라가 산산이 부서지면서 온 육신을 휘감는다. 척추가 전율한다.

나는 바다를 삼킨 자처럼 도취한다. 그러나 굳게 버티고 있던 다리가 기우뚱하면서, 내 몸은 난파한 범선이 되어 해변 쪽으로 쓸려 나간다. 여기서 후퇴할 수 없다. 좀 더 센 녀석과 상대를 해야겠다. 바다가 나의 행군에 겁을 집어먹고 가운데가 쩍 하고 갈라지면서 길을 내준 것은 아니지만, 이런 나의 기세를 그리 쉽사리 꺾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하지만 아뿔싸, 유혹에는 덫이 있는 것인가? 이만하면 되었다고 돌아서려는 찰나,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 모래사장이 지척인데 물 속에 함정이 있는 것처럼 몸이 가라앉는다. 분명 주변에는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의 상반신이 보이는 지점인데 발이 허우적거린다. 절벽처럼 깎인 곳이 있는 줄 몰랐다. 예상치 못했던 복병이었다. 해신(海神) 포세이돈의 근육보다 더 강하게 붙을 쭉 펴고 자분적게 헤엄을 쳐야 한다. 바다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

바다에서 편안하게 유영하는 일은 실로 어렵다. 갑옷(甲)이 불룩어느 두르고 거대한 덩치 속에서 안간은 작은 물고기보다 더 무력한 미물이 된다. 머리 위에 태양이 수억 년 전 그대로 뜨겁게 타고 있었다. 그 시간을 겨져 모래가 태어난 지구의 역사가 내 발 아래 있다. 마침내 착지(着地)가 된다. 그 사이 불과 몇 초였을까? 이전히 지치지 않고 밀려오는 바다의 육체를 다시 바라본다. 나의 자취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대신 그 바다는 어느새 내 몸에 깊게 스며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 육지로 걸어 나온 것이다.

많이 당황스러운 '피싱' 대응책

노트북 ON

김 민 지
<경제산업팀 기자>

우리 사회에 '보이스피싱'이란 용어가 등장한 건 2006년경이다. 초기에는 누가 이런 전화에 속을까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날이 갈수록 피해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카드론 방식 등 신종 수법이 등장하면서 범죄 발생 이후 피해액은 최고치(1019억원)를 기록했다.

이처럼 범죄 수법은 갈수록 교묘하고 지능화되고 있는데 정부와 금융사들의 대응 능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주요 은행들이 피싱 보안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뒷북' 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들이 보안 강화에 소극적인 것은 수익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안 강화에 투자를 꺼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정부가 보안 기술을 강요할 게 아니라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보안 강화에 신경 쓰고,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철저히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금융 당국은 향후 예상되는 보이스피싱 사례로 크게 3가지를 꼽는다. 우선 만기 도래하는 대출 거래자, 아파트 분양자의 정보를 캐낸 뒤 대출금 상환 또는 분양대금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이다. 또 참여자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경품 수령 비용 명목으로 자금 이체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카드론 외 비대면 대출 상품을 활용한 금융 사기다. 여전히 정부와 금융사들의 행보는 국민의 기대보다 더디다. 앞으로 국민들을 위한 한발 빠른 사고 방지 대책을 기대해 본다.

하루 1.5ℓ 물 10일간 마셨더니…

"몸 가뿐…피부 촉촉"

10일 체험 지원자 생생한 경험담

녹차 핵심성분 고농축 제품 물 마시는 좋은 습관도 생겨

"물 마시는 것이 몸에 좋다는 것은 알지만 쉽게 마시기가 어려워요."

"화장실 가는 것이 불규칙해요."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건조해요."

지난달 진행된 '워터플러스 10일 체험단' 지원자들의 사연이다. 지원자 대부분이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건강과 미용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일일 물 섭취량인 1.5~2ℓ를 마시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 10명 중 7명이 권장량에 부족한 1.2ℓ 미만을 섭취하고 있으며, 10명 중 1명은 하루 종이컵 1~2잔 분량인 200~400㎖ 정도밖에 섭취하지 않는다.

차 브랜드 설록은 물 마시는 습관을 통해 건강한 몸의 변화를 돕기 위한 '워터플러스 10일 체험단' 행사를 지난달 17~26일 진행했다.

체험단은 배변 활동 개선, 촉촉한 피부, 가뿐해진 몸을 목표로 워터플러스 1포를 생수 500㎖에 타서 하루 3회씩 마셨다. 열흘 후 체험단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설록에 따르면 체험 후 규칙적인 배변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7%에서 75%로, 가뿐해진 몸에 대한 만족도는 3%에서 82%로, 촉촉한 피부에 대한 만족도는 2%에서 80%로 각각 증가했다. 다음은 참가자들의 '생생한' 체험담이다.

-"체험단을 진행하면서 '물을 꼭 마셔야겠다'는 의무감이 생겼어요. 체험 일주일 후부터는 화장실 가는 게 편해졌고요." /이나리(20대·대학생)

-"군것질이 많이 줄어 몸이 한결 가볍고 물 마시는 좋은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김경이(30대·디자이너)

-"푸석한 피부와 변비로 고생했던 게 생활이 달라졌어요. 피부는 수분크림을 듬뿍 바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촉촉해졌어요." /김란이(20대·주부)

"물을 많이 마셔서인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어요." /김유진(20대·대학생)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설록의 '워터플러스'가 있었다.

녹차 대표 핵심 성분인 카테킨을 고농축한 신개념 건강 서플리먼트인 '몸이 가벼워지는 물 워터플러스 3종'은 제리펀치, 레몬라임, 해피스윗(자몽) 맛으로 물을 맛있게 만들어, 쉽고 재밌게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일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워터플러스 1포에는 블루베리 25알 또는 어른 토마토 12개와 동일한 6750ORAC의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스틱 파우치 형태로 휴대가 간편한 워터플러스는 1포를 500㎖ 물에 타 마시면 된다.

제품은 오설록몰(www.osulloc.com)과 전국 할인마트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박지원기자

'워터플러스 체험단 2기' 모집

한국의 대표 차 브랜드 설록은 건강한 물 마시기 습관을 도와주는 '워터플러스 10일 체험단 2기'를 모집한다.

8일부터 15일까지 워터플러스 10일 체험단 블로그(blog.naver.com/waterplus10) 또는 하단의 QR코드를 통해 모바일 페이지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총 100명을 선발하며, 참가자들에게는 10일 동안 필요한 워터플러스 제품 60포, 500㎖ 물 40개, 다양한 미션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체험단 선정 결과는 체험단 블로그·오설록을 개별로 공지된다. 10일간의 체험과 미션을 완료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50만원 상당의 VB 다이어트 캠 관리권, 제주 왕복 항공권, 탄산수 제조기 등을 증정한다.

여드름 피부의 힐링 세안제

세타필 더마컨트롤 제품 트러블·자외선 막아주고 건조한 피부속 보습강화 무너진 피부장벽 살려줘

성큼 다가온 여름에 여드름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덥고 습한 날씨로 피지 분비가 활성화되고 피부에 불순물이 쉽게 쌓여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게다가 뜨겁고 강렬한 자외선과 에어컨 가동으로 건조해진 실내 공기 등이 피부의 수분을 빼앗는다.

여드름을 예방하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외선과 피부 자극, 건조함을 피해야 한다.

강한 자외선은 염증으로 민감해진 여드름성 피부에 색소침착과 광과민성을 일으키고, 지나치게 세정력이 강한 세안제는 피부에 자극을 줘 오히려 트러블의 원인이 된다.

또한 여름철 피부는 겉은 땀과 피지로 번들거려도 피부 속은 메말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건조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여드름뿐 아니라 뾰루지 등 각종 트러블까지 유발한다.

여드름성 피부는 '피부 장벽'이 손상돼 예민한 상태기 때문에 단순히 뾰루지를 치료하는 것보다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여드름 전용 보습·세안제

피부 전문 제약회사 갈더마는 무너진 피부 장벽을 되살리는 데 효과적인 여드름 전용 '세타필 더마컨트롤'을 선보였다.

세타필은 오랫동안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아온 보습제로, 세타필 더마컨트롤은 자외선 차단·자극 완화·보습을 더욱 강화했다.

세타필 더마컨트롤은 혁신적인 '울레오좀 기술'을 적용해 인체 세포막과 유사한 오일 방울들이 마치 미세한 필름을 덮은 것처럼 피부를 보호하고 자외선을 차단한다. 이와 함께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고 무너진 피부 장벽을 회복, 보습력을 극대화한다.

세타필 관계자는 "중증 여드름 환자의 경우 치료 초기 일시적인 홍반, 자극감 및 건조감을 유발할 수 있어 저자극 보습제를 사용해야 한다"며 "세타필 더마컨트롤 제품은 여드름 치료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보습제·세안제로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세타필 더마컨트롤 페이셜 모이스춰라이저(118㎖)와 폼 워시(236㎖)는 가까운 피부과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제품을 판매중인 월원은 갈더마코리아 홈페이지(www.galdermakorea.com)에서 검색하면 된다.

/박지원기자

여름밤 파티장 되는 호텔

임피리얼 팰리스 '서머대첩'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19금 콘서트' 진행

투숙객을 위한 힐링 숙박 패키지, 최고급 요리를 맛볼 수 있는 프로모션으로 인기를 끌던 호텔가가 올여름 밤 화끈한 파티장으로 변신하고 있다.

호텔 파티는 인테리어부터 식음, 상품 기획까지 다른 프로모션보다 품이 많이 들어가는 이벤트로 분류돼 1년에 1~2회 정도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분기별로 대규모 파티를 기획하는 호텔이 늘면서 젊은 파티 피플의 발길이 분주해졌다. 파티 프로모션은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희소가치가 있으면서도 호텔 이용층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으로 호텔들이 선호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말했다.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은 호텔 설립 이래 최초의 파티형 이벤트 '2013 서머 대첩'을 19일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진행한다. 로비라운지 '델미르'와 카페 '이미기', 뉴욕스타일 라운지 바 '조아', 야외 '가든테라스'가 참여해 각각 와인, 맥주, 푸드, 칵테일을 제공하기 때문에 업장마다 다른 콘셉트의 파티를 즐길 수 있다.

입장권은 이미기 이용이 제한된 A타입 입장권(7만원, 세금 및 봉사료 포함)과 모든 파티 입장이 가능한 B타입 입장권(13만8000원) 두 종류로 준비됐다.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은 20~21일 야외수영장 '리버파크'에서 19금 콘서트 파티인 '풀 사이드 파티 위드 DJ DOC'를 진행한다. 콘서트만 관람할 경우 7만7000원, 리버파크 입장과 풀 사이드 뷔페, 콘서트가 포함된 풀 패키지는 16만5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숙박을 포함한 패키지(42만원부터) 이용객에게는 캐주를 뒤 '시로코'에서 에스텔라 담 바르셀로나 맥주 2병을 제공한다.

서울 남산에 위치한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은 매주 금·토요일마다 야외 수영장 '오아시스'에서 풀 파티 '2013 오아시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오후 7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30분까지 진행되어 누구나 입장할 수 있다. 입장료는 11만원.

그랜드 힐튼 서울은 독일의 세계적인 맥주 축제를 재현한 '옥토버페스트'를 앞두고 있다. 9월 7일 단 하루 동안 컨벤션 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리며, 맥주 빨리 마시기, 못 박기, 댄스 타임 등 다양한 게임과 항공권, 라비다 화장품 세트 등 푸짐한 상품이 함께 준비된다. 이달말까지 판매되는 얼리버드 티켓은 15% 할인된 12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권보람기자 kwon@metroseoul.co.kr

stage review

‘괴짜 영웅’의 속사포 같은 웃음 보시라

■스칼렛 핌퍼넬

요즘 여자들은 어깨에 힘만 잔뜩 준 남자들보다는 위트가 넘치면서 속이 꽉 찬 남자에게 매력을 느낀다.

그런 면에서 6월 개막한 뮤지컬 '스칼렛 핌퍼넬'의 주인공은 꽤 매력적이다. 이 작품은 낮에는 파티에 열광하는 한량 영국 귀족 퍼시로, 밤에는 프랑스 공포정권에 맞서 사람들을 구출하는 비밀결사대의 수장 스칼렛 핌퍼넬로 활동하는 영웅의 이중생활을 그린다.

영웅담을 그리고 있지만 핌퍼넬은 슈퍼맨이나 배트맨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영웅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 몸이 아닌 머리로 싸우는 그는 곱추부터 추한 노인까지 매번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기 때문에 멋진 변신 슈트 하나 없다. 심지어 성격은 푼수기가 다분하다. '듣밝블링'한 패션을 선호하고 끊임없이 까불댄다. 심지어 아내 마그리트의 옛 애인이자 프랑스 공포정권의 앞잡이인 적 쇼블랭을 향해 '소분일'이라고 놀려대 객석엔 웃음이 그치지 않는다.

그러나 영리하게 사람들을 구해내고 그 어떤 영웅보다도 한 여자를 깊이 사랑하는 매력남이다.

1997년 브로드웨이에서 처음 선보인 후 16년 만에 한국에서 초연된 이 뮤지컬은 주인공 캐릭터의 매력을 잘 살려냈다는 점에서 원작을 충실하게 각색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5월 프리뷰 공연에서는 지난달 막을 내린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에서 유다 역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 한지상이 한국적으로 재단생한 핌퍼넬을 능청스럽게 소화해 눈길을 끌었다.

그렇다고 아주 가볍게만 볼 영웅물은 아니다. 죄 없는 사람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던 18세기 말 프랑스의 역사적 배경을 묵직하게 다룬다. 이같은 배경 속에서 전개되는 핌퍼넬과 마그리트, 쇼블랭의 삼각관계는 단순한 애정 구도 이상이다.

들을거리와 볼거리도 풍부하다. '몬테크리스토', '지킬 앤 하이드'로 잘 알려진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 혼이 작곡한 웅장한 음악이 귓가에 착 감긴다. 온통 장미꽃으로 가득 메워진 무대, 객석을 향해 다가오는 초대형 뱃머리, 18세기 영국 귀족들의 화려한 왕궁 무도회 등 스케일도 크고 화려하다.

다만 머리로만 싸우는 영웅인 탓일까. 칼싸움을 하거나 사람들을 구출하는 신이 어설프게 그려진 점은 다소 아쉽다.

핌퍼넬은 박건형·박광현·한지상이, 마그리트는 김선영·바다가 번갈아 연기한다. 공연은 9월 8일까지 LG아트센터. 문의: 1577-3363

또디 by 정연식

<691>보통인간

<아르누보 대표작가>

알폰스 무하 작품 한자리에

11일부터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서

아르누보를 대표하는 체코 출신 작가 알폰스 무하의 주요 작품들을 한데 모은 '알폰스 무하 – 아르누보와 유토피아'전이 국내 최초로 11일부터 9월 22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개최된다.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유행했던 아르누보는 '새로운 예술'이란 뜻의 양식이다. 장식적인 문양과 풍요로운 색감, 매혹적인 여성에 대한 묘사 등은 아르누보의 특징이자 정수로 무하가 선보인 스타일이기도 하다.

무하는 기술력의 발달과 기계화를 추구하는 20세기 초반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예술을 일상생활 속으로 끌어들인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또 상업적인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조국애와 민족애를 담은 작품들로 진정한 대가의 반열에 올랐다.

이번 전시에서는 19세기 말 프랑스 사교계의 아이콘이었던 유명 여배우 사라 베르나를 모델로 그린 '지스몽다', '까멜리아', '햄릿' 등의 연극 포스터들이 공개된다. 체코 국민 화가란 호칭을 안겨준 슬라브 서사시 연작도 함께 전시된다.

한편 전시 기간 동안 큐레이터 설명회와 현대미술 및 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강좌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다. 문의: 1566-2775·www.mucha2013.com /조성준기자 when@

뮤지컬 '싱글즈' 땡큐 토크 콘서트 연다

인기 창작 뮤지컬 '싱글즈'가 9·11일 서울 대학로 SM아트홀에서 '땡큐 토크 콘서트'를 마련한다.

이번 콘서트는 출연 배우들이 공연 종료 후 '힐링', '꿈과 열정', '연애' 등 3가지 주제로 관객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리즈다. 제작사인 악어컴퍼니는 "한 달 동안 공연 성공을 자축하고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매주 수·금요일 오후 8시 공연에 한해 남성이 2장을 예매할 경우, 2인이 3만원에 관람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날씨

7/8 月 일출시각 05:18 일몰시각 19:5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서울 24/30, 청주 24/30, 대전 24/30, 전주 24/30, 광주 26/31, 제주 26/30, 강릉 25/31, 울릉도 23/30, 대구 26/31, 포항 25/32, 울산 23/31, 부산 23/27

여름 수 없이 잠약물이 간간한 채 일하는 시류는 카페인이 한마리는 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집니다. 이 호르몬은 콜린을 쉽게 만들어 고통을 발생하게 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생활을 하는 것이 뇌졸중 발생을 줄이는 데 좋습니다.

식중독발생가능지수 /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www.yuhs.ac.kr)

기성용은 가해자일까 피해자일까

임경선의 모놀로그

지난 주말 기성용 선수가 자신의 비공개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이 한 프리랜서 기자에 의해 무단으로 노출이 되면서 파장을 일으키며 급기야는 기 선수의 사과로 일단락 지어졌다. 기 선수의 불손한 태도와 프리랜서 기자의 그릇된 직업 윤리에 대해 갑을논박 말이 많았다.

이번 이슈를 보면서 예전에 일어났던 일이 생각났다. 한 미디어학 특강에 초대된 소설가가 강연 중 거론했던 어떤 특정 내용을 수강생 중 한 명이 이정 배타적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온라인에 그 내용을 올리며 쟁점화시켰던 것. 나는 그것을 보고 왜 강의실 현장에서 강사한테 자신의 반론을 제기하진 못하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까발려야 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다. 당연히 그 정보는 매체에 의해 무한 확산되며 그 소설가는 대중들로부터 뭇매를 받았다. 이런 것이 정의인가? 하물며 이번에는 '닫힌' 강의실 안을 넘어 잠금 장치가 된 '닫힌' 사적 온라인 공간을 폭로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 더불어 기사화라는 공적 영역으로 옮겨와 마녀사냥을 부추겼다. 축구계를 위해 진심으로 필요한 폭로였다면 내부에서 충분히 소통과 해결을 시도해도 됐지만 기자는 굳이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았다.

나는 개인의 표현 자유나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에 매우 민감한데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사람들은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죠. 문제가 될 소지의 말은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온라인은 어차피 다 위험해요" 식의 '현실론'을 말한다. 절망적이다. 우리는 이제 불신을 먼저 깔고 소통해야 하고 노출될 것을 전제로 스스로를 사전 검열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심하고 속내를 말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1인 가구가 늘어가는 이 시대에 어쩌면 온라인이 개인의 고독을 채워줄 부분은 점점 커가는데 자기 표현은 점점 어려워진다. 그리고 미지일아 그 스트레스는 '아직 잘 모르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고 자유롭게 하는 타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에 쓰일 것이다. 이대로 가면 '공인' 운운을 넘어 서로가 서로의 감시자가 되는 병적인 사회가 곧 올 것이다.

칼럼니스트 [illegible]@naver.com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등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 / 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2			9	4	
1		6	8					
							6	5
	1	4						
	6			3			5	
						7	2	
8	9							
					9	5		2
	4	2			8		3	

	4	2			8			7
5								1
		9			2	5		3
			9					
6	3						1	8
					4			
4		6	5			2		
7								4
2			6			3	7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보누스 (펜사 스도쿠 플래티넘 [마이클 리오스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 8877 www.saju4000.com

집도 절도 없는 남자 끌리는데 힘든 일 따른다 해도 재혼해야

단기처음 여자 59년 1월 16일 음력 오전 7~9시

Q 클럽에 들렀던 사람은 말은 이루나 상황은 어렵다고 하여 헤어졌습니다. 이분은 예전에 알던 분인데 연락이 와서 만나고 있습니다.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인물도 좋고 말도 좋아합니다. 집안에서는 모두 반대합니다. 전 혼자 사는 거 정말 싫어서 꼭 재혼하고 싶은데요.

A 사주 풀이를 해보자면 여자의 사주에 비겁(比劫)이 가득한데 관살(官殺)과 관성(印星)이 약하면 식상(食傷)으로 비견을 설기(洩氣)해야 합니다. 식상이 힘이 있으면 남편이 발달하니 재성(財星)이 힘이 들으면 쇠퇴합니다. 사주를 이와 같은 이치로 볼 때 남자친구든 남편이 될 사람이든 궁합이나 인연에 의존하지 말고 개척하면서 살려면 힘든 일이 따른다 해도 재혼을 권유하십시오. 남자분은 초목이 봄을 만난 격이니 운기가 좋습니다. 사망절(死亡節)로서 관생들이 의욕을 갖고 소생하는 형상이니 함께 생활해 보십시오. 식품업과 인연이 있으며 한식(韓食) 재료를 유통하면 성취를 달하니 사업은 신사숙고하고 이 쪽을 유의하십시오.

지하철 전동차 발목 빠져 부상 당분간 굽 높은 구두는 피해야

니잘은 해씨 여자 71년 4월 9일 음력 오후 4시 30분

Q 선생님과 헤드로산주의 글을 보던 자칭인입니다. 11년째 상담사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엔 목소리가 안 나와서 부득이하게 쉴 수밖에 없었고, 이번 주엔 퇴근길에 지하철을 타다가 전동차 틈에 발목이 빠져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앞으로의 건강운을 봐주세요.

A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일이죠. 인생의 알길입니다. 내일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착한 마음과 올바른 계획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뿐입니다. 명심보감(明心寶鑑)에 나와있는 글입니다. 궁조(사주 구조)에 극각살(劇刻殺)이 있어 항상 수족에 부상을 입기 쉬우니 앞으로도 조심하고 굽이 높은 구두는 신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생각을 단순하게 해야 합니다. 천간지지에서 을목(乙木)과 신금(辛金)의 구조가 이전최화로 대립을 하고 있으니 감상선에 늘 주의해야 합니다. 올해 금전적인 투기나 대차 관계는 금해야 손재수가 줄겠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면제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7월 8일~9 [illegible] 김득수 인생상담 02)577-0541

쥐: 48년생 이해를 속여 생은이 착온다. 60년생 들리는 소문은 다 믿지 마라. 72년생 내 인생의 참여물은 스스로 배워야 한다. 84년생 상사에게 담을 한 말이 필요한 날~

소: 49년생 돌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는구나. 61년생 서두르면 후회만 남는다. 73년생 남쪽이 행운의 방향이니 참고하라. 85년생 기다리던 소식은 듣는다.

호랑이: 50년생 별 노력 없이 큰 이익 줍는다. 62년생 때맞춰 한 번에 미치기 딘 격~ 74년생 작은 것 탐하다 큰 걸 그르친다. 86년생 운세가 좋아도 노력 안 하면 무용지물~

토끼: 51년생 갑자기 살견딱풀 할 생길 수도. 63년생 능력을 발휘를 기회가 없어 안타깝다. 75년생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는 격이로구나. 87년생 꿈이 있으면 길은 열린다.

용: 52년생 사업 수완 발휘하여 어려움 생긴다. 64년생 장애물이 넘어지니 골짱 달려라. 76년생 공개한 좋은 성사된다. 88년생 연인의 아픈 곳을 잘 보듬어주어라.

뱀: 53년생 흔들리지 말고 초지일관할 것. 65년생 성심을 다하면 좋은 순조롭다. 77년생 시비 거는 사람은 피하는 게 상책~ 89년생 노래하고 흥을 돋 알아 생긴다.

말: 42년생 자손에게 작은 경사가 생긴다. 54년생 운수가 길하니 움직여라. 66년생 소망한 좋은 이루어진다. 78년생 기회가 왔는데 틈을 클클 생각을 같으니 답답~

양: 43년생 음식으로 인한 틈 조심할 것. 55년생 벌과 벌어 한데 어울리는 격이다. 67년생 아랫사람과의 소통에 힘을 써라. 79년생 겉은 좋아 보이나 안으론 통곡하다.

원숭이: 44년생 자녀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56년생 부당한 청탁은 단호히 거절하라. 68년생 하나를 해줄면 일을 얻는다. 80년생 직장 옮기는 좋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라.

닭: 45년생 오라는 곳이 많아 즐거운 하루~ 57년생 초반엔 고전하나 후반엔 웃는다. 69년생 나무보단 숲을 보도록 노력할 것. 81년생 기분지 움직이면 이미지 손상된다.

개: 46년생 가는 날이 장날인 격이다. 58년생 문서 일은 차후로 미루어라. 70년생 생각도 못 한 곳에서 이득이 생긴다. 82년생 잘나가는 친구 덕에 일이 즐겁구나.

돼지: 47년생 할건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참아라. 59년생 위기는 반전이 된다. 71년생 운세가 길해 노력을 더 하면 수확은 두 배~ 83년생 좋은 틈에 이름이 거론된다.

metro entertainment

"입체적 황반장…배우인생 전환점"

상영 4일만에 120만 돌파 '감시자들'

설경구

설경구(45)는 영화 '감시자들' 출연을 놓고 "얹어 걸렸다"는 말을 달고 다닌다. 함께 출연한 배우는 물론 감독과 제작자 덕에 혼자 편하게 묻어갔다는 뜻에서다. 그러나 영화를 보고 난 뒤 반응은 그렇지 않다. 경찰 내 특수조직 감시반을 지휘하는 황반장처럼 노련하게 영화 전체를 조율했다. 상영 4일 만에 120만 관객을 끌어모은 데에는 그의 조용한 뒷심이 톡톡히 작용했다.

#정우성·한효주 출연… 얹어 걸렸죠

두 차례('실미도' '해운대')나 1000만 관객을 끌어모은 배우로서 자신만의 흥행감이 있을 법도 하지만 "전혀 모르겠다"고 손사래를 쳤다. 그러면서 기대감을 담은 묘한 미소만 흘렸다.

"기술 시사를 보고 난 프로듀서가 '지루할 수도 있다'고 말해 솔직히 걱정했어요. 영화를 본 다른 스태프들 중 가장 나은 반응이 '적당히 재미있다'였거든요. 단단히 각오를 하고 봤죠. 먼저 봤던 감독은 옆에 앉아 제 눈치만 봤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예요. '어디가 지루하다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2시간이 금방 지나갔죠."

촬영에 앞서 배우와 제작진이 만나 한 얘기는 "폼나고 영화 같은 영화를 만들자"였다. 템포와 리듬을 놓쳐서는 안되고, 스타일리시한 작품이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언론시사 후 기자간담회 때 '재미있게 봤다'는 말을 처음 해봤어요. 중·고등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고 (정)우성이 때문에 아줌마들이 극장에 대거 투입될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하하."

제작보고회 때부터 "책(시나리오)도 보지 않고 결정했다"는 말을 종종 한다. "4년 만에 한국 영화로 돌아온 우성이가 괜히 출연을 결정했겠어요. 제작자인 이유진 대표도 믿고, 가장 핫한 여배우인 한효주까지 나온다는데요. 전 얹어 걸렸죠."

#흰머리 등장 - 처음엔 변복 제안

말은 쉽게 했지만 황반장을 위한 준비는 철저했다. 자신의 나이 때와 딱 맞으면서 가장 엄격한 인물이라 판단했다. 안경을 고르고 바꿔 쓰는 시점도 철저히 계산했다. 데뷔 후 처음으로 흰머리로 등장한 것도 눈길을 끈다.

"강철중은 몸으로 뛰며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경찰이지만 황반장은 스트레스를 쌓아두는 인물일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편집된 부분 중 내부 고발로 강등된 내용도 있어서 더 그랬고요. 처음에는 변백을 제안했는데 제작진이 좀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각되지 않는 정도로만 염색을 했죠."

제임스(정우성)와 그를 쫓는 하윤주(한효주)를 비롯한 감시반원들이 치열하게 추격전을 벌이는 사이 황반장은 전체를 내려다보며 지휘한다. 그동안 몸을 혹사하는 대표적인 배우였던 그는 "가장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연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들 뚜렷한 색깔을 지닌 인물들이 이리저리 튀기면 할 수 있는 영화를 안정감 있게 끌고 간 건 그의 몫이었다.

"완급 조절에 신경을 썼어요. 극중 지휘 차량 안에서 혼자 3일 동안 촬영하면서 '급하지 말자'를 되새기며 하자고 되뇌었죠. 데시도 툭툭 테벤으며 선수처럼 보이려고 했고요. 그런데 세 주인공이 함께 호흡을 맞추는 장면은 거의 없어서 어떤 영화가 나올지 예측을 못 했어요. 완성본을 보고는 배우들 모두 다른 영화를 보는 기분이었을 정도니까요."

#혹사하는 캐릭터 다시 그리워

'타워'를 시작으로 하반기 개봉할 '권상종점사(가제)'와 '소원' 등 올해만 네 편이 개봉된다. 몸과 감정을 혹사하는 캐릭터를 주로 해왔던 그에게 이번 영화는 터닝포인트다.

"서른두 살에 영화배우 일을 본격적으로 했는데 이창동·박흥식·강우석 등 강한 리얼리티를 중요시하는 감독들과 주로 작품을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지치더라고요. 나도 편하고 스타일리시한 작품을 하고 싶었고요. 예상치도 않게 '감시자들'이 그런 작품이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시 리얼함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네요."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사진/한제훈(더로드픽쳐스)

star bag

LA공연 7000여 관객 몰려

동방신기가 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노키아 시어터에서 동방신기 라이브 투어 – 캐치 미 인 로스앤젤레스를 열고 7000여 관객을 사로잡았다.

7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동방신기는 이날 공연에서 '캐치 미' '왜' '주문' 등과 팝송을 열창했다. 앞서 홍콩·중국·말레이시아 등을 거친 이들은 칠레 산티아고와 중국 상하이로 무대를 옮긴다.

인니팬 요청에 현지 재방문

가수 **이루**가 인도네시아 팬들의 요청으로 3개월만에 현지를 다시 방문했다.

7일 소속사에 따르면 4월 인도네시아 라팡안디 스나얀 축구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열었던 이루는 3일 현지로 출국해 12일간의 프로모션 일정을 소화 중이다. 4일과 자신의 생일인 5일 토크쇼와 음악 프로그램에서 '미워요'와 '사랑해요' 등을 불렀고 팬들의 생일 케이크 선물에 눈물을 흘렸다.

일본서 주연영화 무대인사

남성 아이돌 그룹 **보이프렌드**가 자신들이 첫 주연을 맡은 영화 '고고(GOGO)송이커멘5'의 일본 개봉 첫날인 6일 도쿄 유나이티드 시네마 도요스에서 무대 인사를 했다.

사랑 경쟁을 벌이는 5명의 꽃미남 학생으로 출연한 보이프렌드는 직접 부른 주제가 '사랑의 마법'에 맞춰 400여 관객들과 댄스를 추기도 했다.

도쿄 단독공연 '플라이 투 러브'

남성 3인조 밴드 **엔플라잉**이 6일 일본 도쿄의 에비스 리퀴드룸에서 단독 공연 '플라이 투 러브'를 열었다.

MBC '위대한 탄생' 출신 셈 카터와 테오, 윤이 결성한 엔플라잉은 이날 무대에서 데뷔곡 '얼마나 좋을까'와 두 번째 싱글 타이틀곡 '맑은 날 흐린 날', 정규앨범 타이틀곡 '플라이 투 러브' 등을 라이브로 불렀다.

남보라 "바리스타 잘 어울리나요?" 연기자 남보라가 지난주 초대 손님으로 참석한 한 커피 브랜드 체험 행사에서 직접 커피를 만들고 있다

▶ 연기할 때만큼이나 진지한 표정이군요.

/조성준기자 when@

신선+재미 '꽃보다 할배' 첫방 시청률 4.15% 흥행 찜/… '슈스케5'도 인기 예고

케이블·종편 예능의 역습

케이블 종편 예능 프로그램이 지상파를 본격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tvN '꽃보다 할배'가 4.15%(닐슨코리아·케이블 가입가구 전국 기준)의 높은 시청률로 5일 출발했다. 수도권 기준으로는 시청률이 최고 6.62%까지 치솟았다.

보통 케이블 시청률 1%는 지상파에서 높게는 10%에 맞먹는 수치다. 보통 4%를 넘기면 대박으로 쳐준다.

이 프로그램은 KBS2 '해피선데이-1박2일'을 국민 예능 반열에 올린 나영석 PD가 CJ E&M으로 옮긴 후 처음 지휘봉을 잡아, 이순재·신구·박근형·백일섭 등 원로배우 4인과 짐꾼 이서진의 유럽 여행기를 그렸다. 첫 방송부터 신선하다는 호평을 받으며 큰 웃음을 선사해 시청률이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꽃보다 할배

다음달 9일에는 매 시즌마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지상파의 술통을 조였던 엠넷 '슈퍼스타K 5'가 시작한다. 허각·존박·울랄라세션·버스커버스커·로이킴 등 여러 스타들을 배출한 이 프로그램에는 올해 무려 198만2661명이 지원했다. 지난해 시즌4가 평균 시청률 8%대를 기록한 바 있어 올해도 좋은 성적이 점쳐진다.

이 밖에 tvN '화성인 바이러스'와 엠넷 '쇼미더머니2', 스토리온 '렛미인3', JTBC '썰전' 등이 인기리에 방영 중이다. 시즌1 방영 당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시청률을 제쳐 화제를 모았던 JTBC '히든싱어'는 9월부터 시즌2에 돌입한다.

케이블과 종편 예능의 이같은 약진은 한두 프로그램 정도가 시선을 끌었던 이전과 달리,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다발적으로 지상파의 시청률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 방송 관계자는 "지상파가 뻔한 내용을 반복해오는 동안 차별화된 콘텐츠와 지속적인 발굴, 실력 있는 연출자와 작가의 영입 등으로 경쟁력을 키워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차세대 가창력 넘버원 가린다

에일리·유성은·손승연 줄줄이 컴백 / 김준수도 대결 합류

차세대 가창력 지존 자리를 놓고 한판 경쟁이 벌어진다.

섹시한 콘셉트로 무장한 댄스곡들이 쏟아지는 여름 음악 시장에 깊은 감성과 탄탄한 노래 실력으로 무장한 가수들이 차별화된 음악을 들고 줄줄이 컴백한다.

에일리는 12일 두 번째 미니앨범 '에이스 몰 하우스'를 발표하고 9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한다. 지난해 2월 싱글 '헤븐'으로 데뷔한 그는 미국에서 성장하며 몸에 익힌 이국적인 음악 스타일로 단번에 주목받았다. 10월 첫 번째 미니앨범으로 확고히 입지를 다졌고, 지난해 연말 시상식 신인상을 휩쓸었다.

앨범 출시에 앞서 4일 재킷 사진을 공개한 가운데, 소속사는 "앨범 측면서도 시크한 이미지로 묘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티저 영상에서는 에일리의 퍼포먼스를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엠넷 '보이스코리아' 시즌1 우승과 준우승으로 가창력을 검증받은 손승연과 유성은은 차례대로 신곡을 발표하고 리턴 매치를 벌인다. 이들 모두 10kg을 감량하고 몰라보게 달라진 외모로도 관심을 모은다.

손승연은 10일 신곡 '미친게 아니라구요'를 발표한다. 지난해 10월 '가슴이 기슴아' 활동 이후 9개월 만이다. 실력파 래퍼인 MC 스나이퍼가 피처링을 맡은 랩 발라드 장르로 기대를 모은다.

유성은은 이달 중순 데뷔 앨범 '비 OK'를 출시한다. 최근 공개한 티저 이미지에는 청순하면서도 섹시한 매력을 담아 신곡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JYJ 김준수의 컴백으로 가창력 대결은 점점이 어를 전망이다. 아이돌 음악 시장은 물론 뮤지컬계에서도 최고의 보컬리스트로 실력을 인정받은 그가 15일 발표하는 2집에서는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기대를 모은다. 이미 선공개곡 '11시 그 적당함'이 음원차트 상위권에 머무르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유순호기자 suns@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에일리·유성은·김준수·손승연.

여가수 A 달라진 몸매 비밀은 '뽀샵'

▶지인들 광고 보고 찬사에 당사자 속 앓이

실력파 여가수 A가 모 의류 브랜드 모델로 발탁됐는데요. 뛰어난 가창력과 달리 몸매가 모델 요건에 맞지 않아 광고주가 곤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미 계약을 마친 상태라 취소할 수 없었던 광고주가 '울며 겨자 먹기'로 고른 방법은 몸매 합성 후 지면으로만 내보내는 것이었는데요. A가 광고에 나온 모습을 본 지인들은 몰라보게 달라진 몸매에 찬사를 보냈지만, 정작 A는 말 못 할 사정에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한편 속옷 브랜드 모델로 발탁된 남자 연예인 B는 지나치게 과도한 근육질의 몸으로 등장해 합성 의혹을 샀는데요. 브랜드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자, 합성 흔적이 덜 풍기는 사진으로 바꿔 재공개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외출 자제 몸사린 연예병사 C '휴'

최근 SBS '현장21'이 세븐과 상추의 안마시술소 출입을 방영하면서 연예병사들의 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군이 발칵 뒤집어질 당시 남몰래 안도의 한숨을 내쉰 연예병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올해 초 가수 비가 복무 중 김태희와 데이트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징계를 받자 연예병사들 가운데 일부는 외출을 자제하는 등 몸을 사려 이번에 큰 화를 면했다는데요.

연예병사 C와 교제 중인 여자 연예인 D의 측근은 "C가 비 사건 이후 D와의 만남을 자제했다"면서 "한동안 국방홍보원 내 연예병사들은 '잘 노는 파'와 '몸을 사리는 파' 두 무리로 나뉘어 끼리끼리 어울렸다고 하더라"고 귀띔했습니다.

▶화제작 시사회 표 구하기 전쟁

화제작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여름을 맞아 시사회 표 구하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봉이 임박한 한 3D 영화의 경우, 입장권을 원하는 만큼 구하지 못한 제작자가 지인들에게 "3D 시사회 입장권 구하기가 너무도 하늘의 별 따기다. 그냥 2D로 보든지 협민하면 나중에 돈 내고 보라"며 읍소하는 촌극이 빚어졌는데요. 그런가 하면 할리우드 SF 블록버스터 '퍼시픽 림'의 국내 수입·배급사인 워너브러더스 코리아는 소속을 알 수 있는 정체 불명의 취재진이 너무 많이 와 정작 봐야 할 사람들이 못 보고 돌아간다는 이유로 온라인을 통해 미리 참여 신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사회 진행 업무를 담당하는 모 홍보사 직원은 "화제작을 일반 관객들보다 미리, 그것도 공짜로 보고 싶은 마음은 영화 편의 관 사람으로서 이해한다"면서도 "시사회 좌석 수는 정해져 있는데 (영화와 관련 없는) 이곳저곳에서 민원이 쏟아지면 미칠 지경"이라고 하소연하더군요.

/연예팀

엄홍길휴먼재단 관절염 무료치료 후원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피할 수 없는 질환이 바로 무릎 퇴행성관절염이다.

우리 몸에는 약 100여 개의 관절이 존재하는데, 그중 무릎관절은 운동량이 가장 많고 일상적인 움직임의 대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빠르게 노화된다.

◆고령 인구 괴롭히는 무릎 퇴행성관절염, 치료 해답은?

무릎 퇴행성관절염은 무릎관절 내 연골이 손상돼 뼈와 뼈가 서로 맞닿아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연골 손상 정도에 따라 초·중·말기로 구분된다. 그런데 연골은 신경세포가 존재하지 않아 손상되도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재생 능력이 없어 자연 치유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무릎 퇴행성관절염 치료 방법으로 '인공관절 수술', '줄기세포 치료' 등이 필요하다.

인공관절 수술은 본래 자신의 관절을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치료법으로 무릎관절 운동량 회복뿐 아니라 통증 경감 효과도 가져다준다. 다만 인공관절은 말 그대로 '인공 구조물'이기 때문에 영구적이지 않다는 한계가 있어 재수술을 할 시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인공관절 수술은 65세 이상 무릎 퇴행성관절염 말기 환자에게 주로 시행되고 있다.

줄기세포 치료는 무릎 퇴행성관절염 초·중기에 시행할 수 있다. 미분화된 세포를 손상된 연골 부위에 주입, 연골로 분화하게끔 만듦으로써 재생시키는 원리다. 치료에 이용되는 줄기세포는 성인의 골수·제대혈(탯줄 혈액)·지방 등에서 채취가 가능하다.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무료 줄기세포 치료 후원

줄기세포 치료는 최신 치료법인 만큼 비용이 높아 경제 사정이 어려운 환자들의 경우 치료를 결심하기 어렵다. 이에 엄홍길휴먼재단과 연세사랑병원이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카티스템)' 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저소득층 무릎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을 후원한다.

연세사랑병원과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 후원 협약 체결

후원의 주관 및 접수는 엄홍길휴먼재단이, 의료 서비스는 연세사랑병원이 지원한다.

연세사랑병원이 엄홍길휴먼재단의 이번 카티스템 후원 협약 파트너로 선정된 결정적 이유는 스스로 노력하는 전문병원이란 점이다. 연세사랑병원은 전문병원으로는 이례적으로 세포치료연구소를 설립, 무릎 퇴행성관절염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 연구를 지속해오고 있다. 연세사랑병원의 이러한 성과는 국제 학술 무대에서 여러 차례 두각을 나타낸 바 있다.

엄홍길휴먼재단 엄홍길 상임이사는 "일부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무릎 통증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다"면서 "연세사랑병원과의 후원 협약으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다시 건강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후원 신청 방법

이번 행사는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전화: 02)2272-8849(엄홍길휴먼재단 후원캠페인 담당자)

인터넷: www.uhf.or.kr(엄홍길휴먼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후원캠페인 담당창 통해 신청)

살~살 빼야 병 안생긴다

■단기 다이어트 부작용

바캉스 시즌이 다가오면서 '1일 1식 다이어트', '디톡스 다이어트' 등 단기간에 집중된 다이어트 요법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무리하게 살을 빼다 보면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대목동병원 위암·대장암협진센터 심기남 교수는 "짧은 시간 안에 체중을 감량하다 보면 비타민, 무기질 등 필수영양소를 섭취할 수 없고 근육량이 줄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이대목동병원이 지적하는 단기 다이어트의 부작용이다.

◆변혈·탈모·변비

탄수화물, 단백질의 섭취를 갑자기 줄이면 우리 몸의 혈당과 필수 무기질이 줄어들어 두통을 동반한 빈혈 증상이나 탈모가 생길 수 있다.

음식 섭취량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져 장운동 등이 저하돼 변비가 생기기도 한다. 빈혈 증상이 나타나면 단백질과 탄수화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탈모 예방에는 필수지방산, 검정콩 등을 먹으면 도움이 된다.

◆생리불순·골다공증·피부노화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면 생리불순이나 무월경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호르몬 감소로 골다공증이 유발 될 수도 있다.

단백질 섭취가 줄고 지방이 갑자기 감소하면 피부 컨디션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다이어트 중이라도 두부, 계란 등 단백질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김보람기자

여름엔 시원하게 '스쿠버 다이어트'

시간당 1000㎉ 소모 일반 헬스 비용으로 거뜬

직장인 김현희(27·여)씨는 두 달 전부터 스킨스쿠버를 배우기 시작했다.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닌 살을 빼기 위해서다. 김씨는 "지루한 헬스 대신 좀 더 재밌는 다이어트 방법이 없을까 찾던 차에 스킨스쿠버를 알게 됐다"며 "생각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많아 두 달 만에 5kg이 빠졌다"고 웃었다.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스킨스쿠버가 다이어트 레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다.

스킨스쿠버는 스킨다이빙과 스쿠버다이빙의 복합어다. 스킨다이빙은 물안경과 숨대롱을 사용해 물 표면에서 잠수하는 것으로, 동남아 같은 휴양지에서 즐기는 '스노쿨링'을 떠올리면 된다. 스쿠버다이빙은 수중 자가 호흡기구(SCUBA)를 가지고 바닷속까지 잠영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처럼 물 속에서 이뤄지는 스킨스쿠버의 최대 강점은 짧은 시간에 많은 칼로리를 소모해 기대 이상의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60kg인 여성이 러닝머신을 1시간 했을 때 약 218㎉, 실내 자전거는 약 440㎉가 소모되는 반면 스킨스쿠버는 시간당 1000㎉가 쓰인다.

배우기도 어렵지 않다. 시작 단계에서는 호흡이 불안정하고, 무거운 장비를 메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자유로운 호흡으로 깊은 해저를 즐길 수 있다.

◆고가 스포츠 이젠 옛말

그동안 스쿠버다이빙은 고가의 장비와 강습료 때문에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권석호 VVIP클럽 스킨스쿠버 수석강사는 "최근 스킨스쿠버는 팀이나 동호회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수강료에 장비 대여료가 포함돼 있어 쉽게 도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강료는 자격증반이나 레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헬스클럽에서 개인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하는 비용 정도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안전지킴이 '버디'와 함께 체험

깊은 물 속에서 진행되는 스킨스쿠버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 잠수할 때는 안전을 책임지는 버디(또는 짝꿍)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권 수석강사는 "스킨스쿠버를 하는 동안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버디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라"고 강조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파스 붙여도 안낫네" 병원가면 목디스크

등쪽 인대 이완이 주원인 프롤로 인대강화주사 등 98%이상 수술 필요없어

오십견 오해하기 쉬운 어깨결림

주부 A(62)씨는 몇 년 전부터 계속된 어깨 결림으로 생활이 어려울 정도다. 그저 잠한일을 많이 해서 아프겠거니 생각하고 어깨를 주무르고 파스도 붙여봤지만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양팔과 손가락에 저림증까지 생겼다. 오십견을 의심하고 병원을 찾았지만 그의 진단명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 즉 목디스크였다.

유상호 병원의 유상호(왼쪽 사진) 병원장은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중 많은 경우가 경추디스크에 의한 연관통 진단을 받는다고 말했다. 목, 허리 등 인체의 기둥이 되는 척추가 불안하다 보면 주위 관절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추디스크는 두통이나 어깨 결림·팔 저림, 가슴 통증과 같은 다양한 부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목디스크는 목이나 등, 허리와 같이 등 쪽에 위치한 약한 인대가 외상 등으로 늘어나거나 파열되는 경우 발생한다. 이때 늘어나거나 파열된 인대는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드물어 약해진 상태를 유지하며 디스크나 협착증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특히 목은 머리의 무게에 비해 목의 인대가 너무 얇고 근육 힘도 부족한 데다 각 분절 인대 모두가 잘 늘어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아픈 부위가 달라지는 다발성 인대 이완이 많다.

젊은 여성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거북목 증후군의 근본 원인 역시 경추부의 인대 이완에 있다. 머리를 앞으로 내민 구부정한 자세가 계속돼 척추 뒷부분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목 뒷부분의 근육과 인대가 늘어나 시간이 흐를수록 마치 거북이 목처럼 변하게 된다.

인대 이완으로 디스크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근력이 위축될 정도로 디스크가 심하거나 협착증이 생긴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만, 이는 전체 척추질환의 1~2%로 극히 드물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디스크의 근본 원인이 되는 인대의 이완을 개선시켜주는 프롤로·DNA 주사 요법 등 비수술적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

프롤로 인대강화주사는 인대 재생을 돕는 주사액을 이완돼 있는 각 경추부와 요추부 인대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고삼투압 용액으로 구성돼 있다. 주사액이 체내에서 국소 염증 반응을 일으켜 인대의 재생을 유도하는 원리로 인대를 튼튼하게 만들어 척추 근육의 불균형 해소를 돕는다. DNA 주사는 혈관 내 섬유아세포와 콜라겐 등 성장인자를 자극시켜 세포의 증식과 치유를 촉진하는 방법이다.

유상호 병원장은 "디스크 수술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다시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지 못한 경우에도 프롤로, DNA 주사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성팔기자

조수석 안전띠 안 매면 머리 충격량 2.7배 ↑

자동차 앞자리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안전띠 미착용 시 충돌 사고를 당하면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이 2.7배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경기도 이천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사고 재현 충돌 시험을 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다른 인체 부위의 충격량은 착용했을 때보다 약 2~4.7배 많았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뒷좌석 인체모형은 충돌 때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운전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의 인체 부위별 충격량은 착용한 때의 약 1.3~2.4배 높아졌다.

앞자리 조수석은 안전띠 착용률이 운전석보다 낮아 주의가 요구된다. 교통안전공단의 지난해 실태 조사 결과 일반도로에서 운전석의 안전띠 착용률은 72%에 그쳤고 앞자리 조수석은 이보다 낮은 49.5%에 불과했다.

/전효순기자 hdlee@

'내 귀에 딱 맞는 보청기' 11~13일 시연회

복음보청기가 세계 최초의 보청기 비교 장비 클랑파인더(KlangFinder) 시연회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클랑파인더는 보청기의 미세한 음질과 기술력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장비다. 보청기를 비교하기 위해 번갈아 착용하게 되면 짧아도 수십여 초의 시간이 소요되고 비교 정확도도 떨어질 수 있는 것에 비해 클랑파인더는 헤드셋 착용으로 동시에 최대 8개의 모델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번 시연회에는 히어링솔루션그룹 맨프레드 스톨프(Manfred Stolf) 대표를 초빙해 청력·이경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용하고 있는 보청기의 성능을 무료로 분석해주고 자신에게 맞는 보청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다양한 시연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클랑파인더 비교 시연회와 세미나는 11일 영등포센터를 시작으로 12일 일산센터, 13일 종로센터에서 개최되며 예약을 통해 시간당 약 3~5명만이 참여할 수 있다. 클랑파인더 시연회 및 세미나에 관련한 내용은 홈페이지(www.bokeum.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577-1050

/김보람기자

삶의질 망치는 남성 발기부전

98.7% "인생 가장 심각한 문제"

발기부전이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만큼 남성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릴리가 지난 3~4월 배우자나 파트너가 있는 30~65세 자기 인식 발기부전 환자 3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8.7%가 발기부전을 '내 인생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응답자의 69.4%가 성관계와 상관없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는데, 가정 생활(51.5%)뿐 아니라 직장 생활(24.3%)·대인관계(24.3%)·취미 활동(23.3%)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삶의 질에 가장 영향을 끼칠 것 같은 질환' 1·2위를 묻는 질문에 52.8%가 발기부전을 꼽아 당뇨병(46.2%), 심혈관질환(28.2%),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하부요로증상(24.9%)·고혈압(24.3%)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했다.

대한남성과학회 이성원 회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발기부전이 심리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증상을 느끼면 적극적으로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pjw@

김다나 4년만에 첫우승

김다나(24 넵스)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금호타이어 여자오픈(총 상금 5억원) 정상에 올랐다.

김다나는 7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의 웨이하이 포인트 골프장(파72 6091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4개로 1타를 잃었지만 최종합계 8언더파 208타의 성적으로 프로 데뷔 후 첫 우승의 감격을 누리며 상금 1억원을 챙겼다.

뉴질랜드 국가대표 출신인 김다나는 2009년 2부 투어를 거쳐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KLPGA 무대에서 활동 중이다.

배희경과 이정민(21 KT), 김지희(19 넵스)가 김다나에 1타 뒤진 공동 2위를 차지했고 신인왕을 다투고 있는 전인지(19 하이트진로)와 김효주(18 롯데)는 각각 공동 10위와 공동 17위에 머물렀다.

김다나가 7번홀에서 호쾌한 아이언샷을 날리고 있다. /KLPGA 제공

한편 KLPGA 투어는 이번 대회를 끝으로 한 달간 휴식기에 들어가며, 다음달 9일 개막될 다나이지 오픈부터 재개된다. /조성준기자

'7년 연승행진' 앤더슨 실바 충격패 UFC 팬들에게는 충격적인 패배였다. 앤더슨 실바(브라질)가 7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UFC 162에서 도전자 크리스 와이드먼(미국)에게 2라운드 1분18초 만에 KO패를 당했다. 와이드먼은 2라운드 초반 완벽한 펀치를 적중시킨 후 넘어진 실바에게 파운딩을 퍼부어 실관의 종지부를 이끌어냈다. 이로써 사상 최강 챔피언으로 꼽히던 미들급의 황제 앤더슨은 11차 방어전에서 무너지며 무려 7년간 이어오던 16연승 행진을 마감했다. /AP 연합뉴스

'엄마에게' 노래에 맞춰 안도 미키 모성 연기 최근 출산 사실을 공개한 일본의 여자 피겨스케이팅 스타 안도 미키가 5일 후쿠오카에서 열린 아이스쇼에서 모성 연기를 펼치고 있다. 안도는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노래한 일본 여가수 AI의 곡 '엄마에게(마마에)'에 맞춰 첫 번째 연기를 펼쳤다. 처음 자신을 미일한 채 출산을 털친 안도는 근기 도출 트리플 살코 점프에서 엉덩방아를 찧었지만 뒤이어 환송가인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맞춰 진행한 두 번째 연기에서는 같은 점프를 무난히 성공시켜 박수갈채를 받았다. /교도 연합뉴스

박병호 홈런 공동선두

LG전 16호포 맹활약…넥센·삼성 40승 고지

넥센이 LG와의 3연전을 모두 이기고 올 시즌 40승(1무29패) 고지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

넥센은 7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홈 경기에서 박병호(사진)의 결승 3점포와 장단 10개를 쏟아 담으며 6승(2패)째를 챙긴 강윤구의 호투를 앞세워 LG를 11-2로 물리쳤다.

페넌트레이스에서 40승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난해까지 40승을 먼저 달성한 팀의 한국시리즈 우승 확률은 50%나 됐고, 4강 진입에 실패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다.

시즌 16번째 홈런을 포함해 1타수 2안타 4타점으로 맹활약한 박병호는 SK 최정, 같은 팀 이성열과 함께 홈런 부문 공동 선두로 올라섰다.

삼성도 잠실에서 40승(2무26패) 고지를 밟았다.

삼성은 적지인 잠실구장에서 두산을 상대로 장단 14안타를 퍼부으며 8-2 승리를 거두고 3연패에서 탈출했다. 삼성 선발 투수 장원삼은 6이닝동안 2실점하며 7승(5패)째를 따냈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프로야구 전적 7일

■ 잠실

팀	1-3	4-6	7-9	R
삼성	105	000	110	8
두산	110	000	000	2

■ 목동

팀	1-3	4-6	7-9	R
L G	001	100	000	2
넥센	013	042	10X	11

올스타전 못나가지만…추신수 역전 결승타·류현진 7승

한국인 메이저리거들이 이틀 연속 잘 던지고 잘 쳤다.

추신수(31 신시내티 레즈)는 7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그레이트아메리칸볼파크에서 열린 원정팀이었던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홈경기에서 1번 타자 겸 중견수로 출전해 3-3으로 맞선 4회 중전 적시타로 역전 결승 타점을 올리며 4타수 2안타를 기록했다.

1타점 2득점 1볼넷으로 시즌 28번째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맹활약한 추신수의 시즌 타율과 출루율은 0.270에서 0.273으로, 0.417에서 0.419로 각각 올랐다.

전날 류현진(26 LA 다저스)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원정 경기에서 6⅓이닝을 4안타 2실점으로 막아 10-2로 팀 승리를 이끌며, 38일 만에 1승을 추가해 시즌 7승(3패)을 달성했다. 또 7-1로 앞선 3회 1사 3루에선 버깔쪽 직구를 밀어쳐 시즌 4타점째를 올렸다.

한편 이들은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7일 공식 홈페이지에 발표한 제84회 올스타전 출전 선수 명단에서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반면 일본인 투수인 텍사스 레인저스의 다르빗슈 유와 시애틀의 이와쿠마 히사시는 나란히 뽑혔다. /조성준기자 when@

‘번개 볼트’ 200m 19초73

올시즌 최고기록 작성

세계 단거리 육상의 1인자 우사인 볼트(27 자메이카)가 남자 200m에서 올 시즌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며 모처럼 자존심을 세웠다.

볼트는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다이아몬드리그 대회 남자 200m에서 19초73만에 결승선을 통과, 자국 동료 워런 위어(19초92)를 가볍게 제치고 우승했다. 그의 이날 기록은 타이슨 게이(미국)가 지난달 미국선수권대회에서 세운 기록에 0.01초 앞선 것이다.

그러나 올 시즌 100m에선 자신의 세계 기록인 9초58에 크게 뒤져 있고, 지난달 미국선수권대회에서 9초75로 우승한 게이에게도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볼트는 경기 후 "아직은 최적의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해 실수를 줄여가는 과정에 있다"며 "블라디미르스가 될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큰 쇼를 보게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조성준기자

볼트가 최상의 미소를 지으며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이대호 3경기 연속 멀티히트…팀은 니혼햄에 패배

일본 프로야구의 이대호(31 오릭스 버펄로스)가 7일 홋카이도 삿포로 돔에서 열린 니혼햄 파이터스와의 방문경기에 4번 지명 타자로 출전, 4타수 2안타를 터뜨리며 3경기 연속이자 올 시즌 28번째 멀티히트를 기록했으나 팀의 1-6 패배를 막지 못했다.

프로축구 전적 7일

서울	3	0	성남
포항	0	2	제주
수원	0	0	울산

What are these? 사물에 대해 말하기(복수)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이것들은 뭐예요?
그 책들은 어디 있나요?
이것들은 제 펜들이에요.
그것들은 저쪽에 있어요.
이것들은 제 것이고, 그리고 저것들이 당신 거예요.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What are these?
Where are the books?
These are my pens.
They're over there.
These are mine, and those are yours.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하기

▶ 빈칸 대화 훈련

문장 중에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말해보세요.

A Where are the chairs and desks?
B There they are, over there.
These are 제 것, and those are 당신 것.

정답 mine / yours

▶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What are [these / those]? Are they yours?

2 My pens are [here / over there].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현재진행시제 부정문

▶ be동사 뒤, v-ing 앞에 not을 붙이며 ~하고 있지 않다를 의미한다

I	am	not	v-ing
you/we/they	are		
he/she/it	is		

▶ 통문장으로 핵심문법 학습. 다음 문장을 두 번 말해보세요.

1 I'm not watching TV. 저는 지금 TV를 보고 있지 않아요.
2 You're not listening to me. 너 지금 내 얘기 안 듣고 있구나.
3 It's not raining now. 그들은 충분한 돈이 있어요.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Because of a ______ increase in profits this quarter, Tyro Sportswear employees will receive their first-ever year-end bonus.
(A) dramatically (B) dramatize
(C) dramatic (D) drama

02 No firm can ______ to rely forever only on the strength of its name to sell products.
(A) require (B) afford
(C) suppose (D) depend

01. 이번 분기의 급격한 수익 증가로 인해, 타이로 스포츠웨어 직원들은 첫 연말 보너스를 받게 될 것이다.
해설 빈칸 앞에는 부정관사 a, 뒤에는 명사 increase가 있으므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C) dramatic을 쓴다.
어휘 increase 및 증가 profit 및 이익, 수익 quarter 및 분기 employee 및 고용인, 직원 first-ever 및 사상 최초의 year-end 및 연말의 dramatically 부 극적으로, 급격히 dramatize 동 더 극적으로 보이게 하다, 과장하다 dramatic 및 극적인, 급격한
정답 (C) dramatic

02 제품 판매에서 브랜드의 유명세에만 의존할 수 있는 회사는 없다.
해설 빈칸 뒤의 to부정사와 함께 ~할 여유가 되다, ~할 수 있다를 나타내는 (B) afford를 쓴다.
어휘 rely on ~에 의존하다 strength 및 강점 depend 동 의존하다, 믿다
정답 (B) afford

TOEIC Speaking ▶ Jump Up TOEIC Speaking Intermediate

Part 6. Express an opinion

선호 사항 질문 유형 파악하기

Do you prefer to change jobs regularly to build up your career or to stay with one company for your entire career? Give specific reasons and details to support your opinion.
경력을 쌓기 위해 정기적으로 직장을 옮기는 것을 선호합니까, 평생 한 회사에 다니는 것을 선호합니까? 당신의 의견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세요.

브레인스토밍 여행하기

[의견 결정] I prefer to stay with one company for my entire career.
저는 평생 직장으로 한 회사에 다니는 것을 선호합니다.

[주된 이유] Most of all, I can get more employee benefits.
무엇보다도, 저는 더 많은 직원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및 근거] For example, my father has been working at the same company for 20 years.
예를 들어, 저희 아버지께서는 같은 회사에서 20년 동안 일하고 계십니다.

[마무리] That is why I prefer this option.
(= That is why I prefer to stay with one company for my entire career.)